

## 고등교육에서 질적 수월성이란 무엇인가?: 한 명문대학교 학부생들의 “공부”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서덕희(徐德姬)\* · 민혜리(閔惠利)\*\*

### 논문 요약

이 연구는 가시적인 양적 지표로 고등교육의 질 혹은 "경쟁력"을 판단하는 획일적 방식의 대학구조개편의 담론과 실재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한 명문대학교인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공부"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학생의 관점에서 성찰할 기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고등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필요와 그 너머' 모두를 무시할 수 없는 공부의 이중성을 자각하고, 전에는 가지지 못하였던 세계와 교육,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체득함으로써 이후 교육적 삶을 스스로 영위해나갈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난다. 즉, "돈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로운 세계를 체험하면서 세계의 중층성을 자각하고, 선학(先學)으로서의 교수와 선배들, 동학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심"없는 공부방법과 태도를 배우고 "깨지는" 공부의 즐거움을 터득하며,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권리라는 소극적 자유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고와 삶의 방식의 가치를 실험하는 적극적 자유를 누린다. 요컨대, 고등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현재의 자신과 세계를 반성하고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태도를 익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별하는 안목을 형성한다. 이러한 그들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학부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필자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양적인 '결과'에 치우쳐 '필요'를 '채우는' 데 급급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개별 역량을 위한 공식적 교육과정을 모색하기 보다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해 온 전통과 여유를 존속하고 복원해야 한다는 점, 개별대학마다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지향이라는 맥락적 차이를 고려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서로 다른 '상향적' 대학구조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주요어 : 고등교육의 질, 질적 사례 연구, 공부의 이중성,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 교육공동체, '상향적' 대학구조개편

\* 조선대학교

\*\* 서울대학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혹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역사상 지금처럼 개혁에 대한 열망이 뜨거울 때는 없었다고 단언한다(신현석, 2003: 84). 서구식 대학의 역사만이 아니라 동양 전통사회의 독자적 고등교육의 역사까지 포괄한다고 하면 이 단언은 근거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고등교육의 역사에 한정지어 말한다면 그의 단언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또한 단언할 수 없다. 고등교육 내적으로는, 2005년 현재 진학률이 80%를 넘어 소위 '만민고등교육의 시대'가 되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으며(김기석, 2008), 외적으로는 IMF 이후 '지식기반사회'의 국제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고등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추동하고 있다(정진곤 외, 1998; 이두휴, 2001).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의 대중화, 즉 학부교육의 대중화로 인하여 학부교육의 성격이 변하였다. 양적 팽창 이전의 학부교육은 소수를 위한 "엘리트교육"이었으며, 그들의 졸업 후 진로 역시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 대학의 교육력이 부족해도 교육수요가 풍부하고 입시 및 학사운영에 대하여 국가가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대학은 큰 노력 없이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이두휴, 2001: 114). 그러나 양적 팽창 이후 학부교육은 만인을 위한 "대중교육", 아니 "보편교육"이 되면서 고횘력실업자군을 양산하였다. "88만원세대"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인구감소로 인한 고등교육 수요의 감소는 고등교육이 갖는 기능과 의미 자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외적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전과는 달리 다원적 능력, 그리고 고숙련직종에의 요구가 증대하였고 그에 따라 고등교육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지식정보화사회의 지식, 정보의 생성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기를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이두휴, 2001: 116).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월성 중심의 대학 간 경쟁주의와 실용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주의를 강조하였다(신현석, 2003: 89).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학교 간, 전공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실지로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에 수요자 중심의 교육패러다임 전환이 모색되면서 많은 대학에 학부제가 도입되고 실용적 지식인 양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학사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빌미로 위로부터 획일적인 구조개편이 강요됨으로써 교육의 질은커녕 이제까지 각 대학이 형성해온 전통과 역사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신의순, 2008). 가령, 기능적 교양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의 학부제는 학과의 선후배관계가 중심이 되었던 대학생문화를 흔들고 당장의 기능과 연결되지 않는 기초학문의 위기를 낳았다고 비판받는다(신현석, 2003: 91). 그런

데도 여전히 각 대학들은 대학평가를 위한 단기적 안목에 갇혀 “경쟁력”으로 치환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처방을 찾는 데 급급하여 각 대학마다의 특성과 전통을 무시한 채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모방한다.

고등교육 내·외적 맥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고등교육에 요구되는 것들이 달라질수록 고등교육, 고등교육의 질,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고등교육개혁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신현석(2005: 12)에 따르면 고등교육이란 “중등교육까지의 교육을 보통교육(common education)으로 볼 때, 보다 고차원적인 교육과 정밀한 연구를 통해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학교제도의 최종 완성단계”이다. 그러나 보통교육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이러한 일반적 정의는 고등교육이 이미 보편화되어 보통교육의 의미를 지니게 된 현재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고등교육이 보통교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질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질은 대학경쟁력 지수, 예컨대 교수의 연구물 편수, 학생들의 취업률 등 양적인 지표로 확인하기 어렵다. 고등교육의 질(質)은, 말 그대로 고등교육의 본 바탕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체험적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지표로 환원되기 이전의 상태, 즉 ‘문(文)화되기 이전의 ‘질(質)’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조용환, 2004). 그 ‘질’에 비추어 우리는 ‘고등교육답다’,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비로소 ‘수월성’ 논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의 질, 고등교육의 본 바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다. 제한된 능력과 여건 상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교육 그 자체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본질에 있어서는 초등과 중등, 고등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sup>1)</sup> 그러나 고등교육이 초등교육, 중등교육과의 학제적 연속선상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된 용어이며 그 제도의 본질에 따른 독특한 ‘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초등·중등교육과 구별되는 제도화된 고등교육의 실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제도화된 고등교육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생활세계가 되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즉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간형성의 구체적인 과정은 고등교육의 ‘질’을 궁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한편, 교수(教授)보다 학습(學習)이 더 원초적이며(조용환, 1997: 34; 한승희, 2006), 가르침이란 결국 배움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대학에서 학생이 도대체 고등교육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것을 의미화하고 있는지는 고등교육의 ‘질’을 이해하

1)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고등교육에서의 ‘고등’의 의미를 ‘질’ 혹은 ‘수월성’과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한다(신현석, 2005: 264). 그렇게 보면 고등교육은 자동적으로 초등이나 중등교육에 비하여 교육의 본질적 차원에서 수월성이 높은 것이 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교육의 소재가 되는 지식의 수준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교육 그 자체의 본질에 있어서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에서도 배우는 아동·청소년들이 체험하는 교육의 실체는 연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질적 연구방법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교육의 실체가 연구되고는 있지만 배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험이라기보다는 학생문화연구가 대부분이며(김소희, 1991; 이혜정, 1989), 수업연구의 경우는 주로 교사의 관점이나 성인 연구자의 참여관찰에 의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서근원, 2003; 김정원, 1997; 이혁규, 1997). 고등교육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열악하여, 아직까지도 연구자나 교수자의 관점에서 현실진단과 정책적 주장 및 처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오옥환, 2003; 이두휴, 2001). 물론 학생들의 학교선택, 전공선택이나 변경요인 등을 연구한다거나(오재림, 1992; 김성식, 2008), 대학생들의 학습접근방법에 대한 심리적 변인 등을 연구(안도희 외, 2005)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적 조건 속에서 그들의 학습체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최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학생들을 유연하고 창의적인 지식 생산자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그 학생들을 주체로 보고 그들이 체험하는 고등교육의 실체를 연구한 연구자는 많지 않다. 여전히 교육연구에서 학생을 교육의 수동적 객체로 보는 '교수(敎授)중심적' 관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조용환, 2004: 69; 한승희, 2006). 또한 학업 성취도나 취업률 등과 같은 교육의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교육의 과정(process)보다는 산출(input)과 투입(output)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결과이다. 신현석(2005: 261)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을 하나의 체제(system)로 보았을 때 이제까지의 고등교육 연구는 교육의 실질적인 과정은 도외시한 채 여건과 결과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면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도 못한 셈이다.

다행히 문화기술적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고등교육의 실체를 학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김영철, 1986; 조용환, 1999; 윤여각, 1997; 박상옥, 2001). '교육'과 구분되는 '문화화'라는 개념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김영철(1986)은 1980년대 "학생운동" 문화를 중심으로 대학신입생들이 대학만의 독특한 문화적 장치들을 통하여 소위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조용환(1995)은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와 학력중심의 사회에서 "홀로서기"가 유예된 여대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발달과업을 수행해 가는지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들은 대학이 처한 독특한 사회문화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삶과 문화를 문화와 교육의 관점에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대학의 제도적 장치와 기제들에 초점을 두고 그 가운데 학생들이 학문적·교육적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도 있다. 윤여각(1997)은 대학원에서 "교육족"이자 "학문족"인 대학원생과 교수가 어떻게 생활하며, 서로 다른 기대들이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학문의 수월성이 유지되는 기제는 무엇인지를 드러내었고, 박상옥(2001)은

대학의 ‘학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 ‘학제적으로’ 구분되는 고등교육의 질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등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초·중등과 구분되는 독특한 제도적 실제, 가령, 학생들의 수업 선택을 통한 교육과정의 구성, 수업 내용의 구성과 방식에 대한 교수의 자율성,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업 외 공간 시간들이라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적 체험을 구성해 나가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학제상 고등교육은 “최종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주어진 위와 같은 특정 조건 속에서 “교육”이라는 명시적인 이름하에 생활세계가 구성되는 마지막 과정이며 동시에 그 “교육”은 그 결과로서의 사회적 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sup>2)</sup> 물론 교육 그 자체의 본질은 초등과 중등, 고등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최종’이라는 말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따로 논의하려고 할 때에는 초등이나 중등과 구분되는 독특한 제도적 실제로서의 고등교육을 상정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아무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 무한경쟁사회에서 각기 다른 진로를 선택한 명문대학교 학부생들이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교육을 위한 제도화된 조건 속에서 자신의 “공부”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그것의 의미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한다. 학제상 “최종교육”으로서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의식적으로 다양한 배움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는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와 전통에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진다. 특히 “공부”는 하나의 ‘민속용어(folk term)’로 그러한 다양한 의식적인 배움의 노력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학과공부를 포함하여 진로를 위한 준비, 그 외의 다양한 배움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 등이 포함된다. 물론 “공부”는 일상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가령, ‘학문’의 관점에서, ‘사회화’ 혹은 ‘문화화’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육’의 관점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배움의 과정인 “공부”를 최대한 학부생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연구자의 ‘교육’ 개념에 재단되지 않은 그들의 배움의 과정을 드러내고 동시에 연구자의 해석적 순환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드러난 그것의 교육적 의미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하였다.

교육은 사회화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조용환, 1997: 75). 이념형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서의 교육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기대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이데거(Heidegger, 이기상 역, 1999)의 말을 빌면, 인간은 ‘세계 내 존재(being -in-the-world)’이기 때문이다. 그러

2) “교육”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활용하는 민속용어(folk term)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정리된 학문적 의미의 교육과 구분된다.

나 동시에 인간은 사회화의 압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에의 존재(being-to-the-world)'이기도 하다(Merleau-Ponty, 류의근 역, 2002).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와 각자에게 주어진 서로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화가 설정해 놓은 경계 속에서, 혹은 그것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더 새롭고, 더 자유롭고, 더 깊이 있는 자신을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 그 과정이 교육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도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이 제도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한울대학교는 일제 패망이후 1946년 “국가의 전학계를 대표할만한 거대한 종합대학”을 세우기 위한 ‘국립한울대학교설립안’에 근거하여 창설된 한국의 대표적인 국립종합대학교이다. 학벌사회를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은 “한울대학교가 폐지되어야 한국이 산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울대학교는 한국사회에서 최고의 학벌로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명성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꾸준히 상승하여 Times지 선정 2007년 세계 대학 종합순위 59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울대학교는 한국의 대학들 중에서 양적인 지표로 볼 때 소위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적인 지표의 수월성이 질적인 과정의 수월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 자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지금 양적인 지표에 기대어 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울대학교는 2000년대 들어 학부 교육과 기초 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비약을 목표로 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교수학습센터에서 학부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 하에 2003년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 연구 프로젝트인 “한울대학교 교육현황 및 성과에 관한 기초 조사”의 하위 연구 중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기초 조사 중 하나가 학부생들의 ‘공부’의 목적 및 과정, 그 의미를 최대한 그들의 관점에서 기술(記述)하는 것이었고,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특히 대학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독특한 태도와 능력, 그리고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프로젝트 전후로 고등교육 개혁을 주장하며 나타난 담론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새로 형성된 문제의식

에 따라 위의 기술적 연구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이다.

위의 연구프로젝트는 한울대학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왜’ 공부하는지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서 학부생들 중에서도 대학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모색을 해나가고 있는 3,4학년들 12명을 대상으로 각 두 차례씩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모두 2003년과 2004년 당시 한울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부생들의 생활을 포괄적으로 참여관찰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선택의 범주를 크게 대학원 진학, 취업, 고시로 나누어 각각의 진로선택에 따라 어떤 강의를 선택하고, 전공 혹은 부전공 그리고 교양 강의의 선택 기준과 수강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전공의 성격상 강의의 형식, 그에 따른 학생들의 태도 역시 달라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되도록 단대별로 골고루 연구참여자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성별 역시 고려하였다. 다만, 연구의 여건 상 한울대학교의 모든 단과대학에서 서로 다른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 상 연구참여자의 ‘대표성’보다는 ‘전형성’에 주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진로선택에 따라 취업과 진학, 고시, 미결정 각각 3명씩 선정되었다. 그 결과 인문대에서 2명, 사범대에서 2명, 자연대에서 4명, 법대에서 1명, 경영대에서 1명, 공대에서 2명이 선택되었다.

면담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12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1차 면담은 주로 학생들이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강의나 시험, 그와 무관한 자기 공부 등 대학에서의 공부와 배움,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 면담은 모두 제보자의 허용 하에 녹음되었으며 이후 녹취되었다. 녹취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약 한 달 후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하여 진로선택을 하게 된 경로와 맥락, 강의를 선택하는 경로와 맥락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며, 대학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 대학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질문함으로써 앞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대학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미 부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은 모두 비구조화된 질문과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매번 약 한 시간 반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얻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주로 스트로스(Strauss, 1987)가 제안한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중추적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거쳤다. 1차 분석의 결과는 2004년 연구보고서로 출간되었으며,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이라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에 터하여 개방적 코딩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부”의 동기와 내용, 그리고 방식에 있어서 모두 상반된 두 가지 방향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방향성을 ‘필요와 그 너머’라고 하는 축으로 중추적 코딩을 하고, 그 축 아래에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공부”의 이중성의 자각을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세계와 교육, 그리고 자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학문과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로 해석하였다. 아래 기술될 3장이 분석 결과에, 4장이 해석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고등교육의 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이론적 함의와 실제적 시사점을 주는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연구 대상에 있어서 한울대학교의 학부생들이 고등교육의 질을 체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어느 대학보다 양적 지표상의 수월성을 강하게 요구받는다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예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한울대학교 학생들이 침예하게 보여주는 “공부”의 이중성과 그에 근거한 교육적 의미의 해석은 제도화된 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의 본바탕을 드러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료 수집 차원에서 두 차례의 면담으로는 심층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학생들의 가치지향의 차이가 그들의 “공부”에 미칠 영향 등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연구여건상 좀 더 심층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이 연구는 개별 학생들 내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다만 “공부”의 서로 다른 두 방향이 어떤 단과대학의 어떤 학생이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대학교육의 의미가 지향보다는 학년 간에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조용환의 연구(1999)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sup>3)</sup>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한 변증법적인 인간형성의 과정이며(조용환, 1997: 34), 그 과정은 그 주체들의 체험 속에서 내면적으로 평가된다. 이제까지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 혹은 고등교육의 질은 대학경쟁력으로 환원되어 이해되었으며 그 경쟁력을 드러내는 지표로 주로 가시적인 양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신현석, 2008).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점과 체험 등 숫자로 잡히지 않는 과정을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논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내적인 체험과 관점이 고등교육의 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조용환(1999: 293)은 기존의 여대생문화연구에서는 학문지향, 취업지향, 연애지향, 취미지향, 사회운동지향 등 범주로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그 차이를 살피고자 하였지만 연구결과 지향에 따른 차이보다는 학년 간 편차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 역시 학생들의 가치지향의 차이보다는 학년 간 편차가 더욱 중요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성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II. “공부”의 이중성: 필요와 그 너머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출신학부를 중시하는 독특한 학벌사회다. 그러한 사회에서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소위 “엘리트”로 불린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엘리트”들조차도 지금의 대학생활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를 내린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진로를 고민하고 자신의 공부를 구성해 나간다. 그들 역시 ‘필요’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공부가 ‘필요’에 의해서만 이끌리는 것은 아니다. ‘필요’ 이면의 혹은 ‘필요’ 너머의 또 다른 가치가 그들의 공부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식을 결정한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공부”를 구성하게 되는 기준, 그 선택에 따른 공부 내용,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차례로 정리하겠다.

### 1. 기준: “안정”,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미”

L 군: 특히 인문대는 취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 이공계는 IT를 가거나 연구하러 갈 수도 있는데, 나이 40이 넘으면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고생은 엄청 했는데, 대우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공대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관리 하는 쪽이 나중에는 더 대우받고 연구하는 쪽은 관리 받는 곳에 매여 있으니까요. 끌려가는 게 싫은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연구비 지원도 잘 못하니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힘드니까.. 차라리 외국으로 가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잘 한다는 곳이 카이스트, 한울대, 포항공대인데, 그래도 와서 보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요.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 가서 배우는 것보다 못하고, 시설이나 이후의 인정받는 면에서도 그렇구요. 제가 볼 때는 대학원, 취업, 아니면 다른 길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L군은 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다. L군은 중학교 때까지 전교에서 1,2등을 다투던 모범생으로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 그래서 최우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과학고를 아무런 주저 없이 선택했다. 그런데 과학고 선택은 잘 한 일이었을까? L군은 과학고를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지냈고, 성적도 전체적으로는 평균이상이었다. 그런데 고등물리나 고등화학은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이쪽에 적성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과학고는 자연계열을 지원할 경우에만 비교대신이 적용되었다. 중간자퇴를 하지 않는 한 자연계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수학과를 선택했다. 대학에서의 전공 수업은 만만하지 않았다. 수학과 K양의 표현을 빌면, “수학에 관한 한 천재와 비천재의 구분이 너무 명확”했다. 지금에 와서는 전과(轉科)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맞

취하려고” 했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랬듯이 “열심히 하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다. L군은 어려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기 시작했다. 2년을 방황하면서 진로 고민을 하였다. 게다가 L군은 방위산업체 근무를 하면서 취업의 불안정성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결국 “안정적인 것”을 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한의사는 “피곤해서” 싫고 하여 “고시”를 선택하였다.

L군의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 선택의 과정은 현재 고등교육, 특히 학부교육의 난맥상을 한 눈에 보여준다. 고등교육의 질 문제는 학생들의 체험의 질이고 그 체험의 질은 학생들의 학습 생애와 무관할 수 없다. 학생이 체험했던 중등교육의 질, 그리고 앞으로 밟아 나가게 될 진로가 그들의 “공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L군의 사례는 중등교육에서 진학 결정이 얼마나 대학입시에서의 “성공”을 기준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그 왜곡이 이후 대학생활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것은 대학 수업에서, 그리고 결국 평생 직업을 위한 탐색에 차질을 일으키게 된다. L군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서 충분히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입시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수학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안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외재적 가치를 위하여 대학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공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안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공부”를 구성해나가는 한울대학생들은 L군만이 아니다. 한울대학교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도 많지만, 전공이 자기 적성에 맞으면서 “아주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취업을 선택하며, 그나마 인문대와 자연대처럼 취업이 쉽지 않은 경우는 고시가 중요한 선택지가 된다. 고시에 불기만 하면 소위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이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L군의 경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게임 만들기에 흥미를 느꼈지만 40대 중반만 되어도 살아남기 힘든 기업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노동조건을 체험하였다. IMF 구조조정 이후 노동시장의 상황은 명문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리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L군처럼 전공과 관계없이 고시를 선택한 학생들이 한울대에는 많다.

그러나 “안정”된 진로를 선택한다고 해도 아무 진로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한울대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즉 수월성을 고민한다. 가령, 전자공학과 K군은 학부 성적도 나쁘지 않고, 전공도 따라가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K군은 “학자라면 뭔가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신은 “시키는 일만 잘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과정만을 마치고 취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 이러한 판단은 수학과 K양에게서도 발견된다. 고등학교 때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느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때 자원봉사자 생활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인터넷 과정

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오래 앉아서 파고드는 성격”이 아니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잘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떤 일인가? “재미”가 있다고 늘 수월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가 없는 일을 잘 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리 “안정”을 추구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재미”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어렵다. 한울대학교 학생들은 전공이 “안정된 미래”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재미”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자연대 학부를 1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 2학년으로 복학한 C군도 처음에는 흥미와 관심이 있어서 해양학과를 선택하려다가 “미래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접고 군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다. 처음에는 “상식차원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혼자서 책을 읽거나 경제 신문을 보다 보니 “재미가 생겼다”. 원래부터 “공부는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군을 마치고 경제학 책을 보면서도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복학하면 통계학을 선택한 후 경제학을 부전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재미”라고 하는 내적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한 “공부”의 기준이다. 비록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재미”가 전연 없는 공부를 “잘 하기”란 쉽지 않고 잘 하지 못하는 공부로 “안정”된 직장을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에 몰입하여야 하고 몰입이 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안정”과 “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재미”라고 하는 기준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가치라기보다는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가치이다. 다만 고시를 준비하는 수학과 L군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가지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재미”보다는 “안정”이 먼저 선택되는 것이다. 실지로 L군도 자신의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고시를 택한 것일 뿐 수학에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표인 “안정”을 성취하면 대수학이나 게임 만들기를 “취미”로 하고 싶다는 꿈을 지니고 있다.

L 군: 취미로 하고 싶은 건 대수학이나 게임 만들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일단 제 지금 목표는 안정적인 것을 하는 건데, 그런 건 재미는 있지만, 안정적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은 실력과 함께 운도 필요하고, 수학은 실력이 아주 중요하고 유학도 갔다 와야 하고, 게임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수학은 취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 만약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된다면요?

L 군: 일단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시는 젊은 시절에만 할 수 있으니까 해보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나쁜 것을 많이 보고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 변호사나 그런 입장에 되면요. 제 친구들도 안정적이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안정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혹은 타협해서 회사

원 생활을 하겠다 하기도 하고.

이러한 선택은 한울대학교 학부생들뿐만 아니라 IMF 구조조정이후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학부생들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2008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었으며, 직업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안정성(30.5%)'과 '소득(27.9%)'이었다. 그에 비하여 흥미나 적성을 고려한다는 대학생들은 13.0%에 그쳤다.<sup>4)</sup> 이러한 진로 선택과 그에 따른 공부는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무관하지 않다. L군의 지적처럼, "안정적이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느냐"는 한울대학교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이지만, 대체로 "즐기면서 일하는 것은 물 건너갔고" 대신 "답답한 일"이지만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기반을 잡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는 삶"을 선택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 "안정"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학생들도 있다. 특히 철학이나 물리학과 같이 순수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대학입시에서 전공선택에 충분히 자신의 적성과 흥미가 고려된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성향은 더욱 강한 것처럼 보인다.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철학과의 H군은 "학문하는 태도에서 모범이 되시는" 교수님들을 보면서 "어느 분야에서든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으니까 더 해보고 싶고" 그 재미가 "정말 재미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이다. 재미가 있어서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이 그 학문에서 수월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면, "먹고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H 군: 물론 두 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문을 하는 태도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고, 어느 분야에서든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은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계속 인문학을 한다면 재미있으니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더 해보고 싶고, 또 지금 느끼는 이것이 정말 재미가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좋아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하지만, 할 일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있고요.

H군은 철학 외에도 악기와 성악, 검도나 복싱 같은 격투기도 배우고 싶어 한다. 지금은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하지만 모두 재미있고, 자신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학을 결정한 물리학과의 C군 역시 전공이 정말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사를 마치고, 방위산업체를 다니면서 군대를 해결하면서 돈도 벌고 경력이나 경험도 쌓고 또 잘 하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갈 수 있으면 좋겠

4) [http://www.donga.com/fbin/output?f=ne\\_&n=200808040483](http://www.donga.com/fbin/output?f=ne_&n=200808040483)

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때가 되면 나이가 있어서 “불안정”하지 않느냐 고민을 하지만 C군은 들어올 때부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모님들은 취직을 빨리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지만 그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웬만하면 물리 관련 직업”을 가질려고 한다.

“안정”은 “공부”에 있어서 외재적(外在的) 가치로서 외적인 시대상황,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안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살려면 “잘 해야 한다.” “잘 함”, 즉 수월성은 K양의 “천재와 비천재의 구분”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그 영역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하여 확인된다. 잘 할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H군의 표현처럼, 어느 영역에서나 “먹고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즉 “최소한의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안정”이나 “재미” 역시 우선순위가 달라질 뿐 어떤 경우에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은 “공부” 외적인 가치인 데 반하여 “재미”는 내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무엇을 더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 2. 성격: 채우기와 누리기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준이 이끄는 공부의 성격은 무엇인가? 한울대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공부하는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그들이 실제 하는 공부의 내용은 진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진로와 그 공부 내용의 차이에 관계없이 그 성격은 크게 ‘채우기’와 ‘누리기’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공부의 기준이 구체적인 공부 내용을 통해 발현되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 1) 진학: 동향 파악과 기초 다지기

우선 진로가 전공강의와 가장 확실하게 관련되는 경우는 학부의 동일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이다. 그들은 전공의 ‘동향 파악’이나 대학원 공부의 ‘기초 다지기’를 위하여 “공부”한다. 그렇다고, 이 “공부”가 대학원 입시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울대 학부생들은 한울대 대학원으로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 합격여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그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하게 될 공부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그 공부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기초를 다진다.

먼저, 학생들은 대학원에서 특정한 세부 전공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들을 선택하여 들어 보려고 한다. 전공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에게 잘 맞

는 세부전공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철학과의 H군은 “우선 안 들어본 분야”를 들어보려고 한다. 같은 학과라면 세부전공이 다르다고 해도 어떤 분야이든 연관성이 없을 수 없고, 교양을 넓힌다는 면에서도 좋지 때문이다. 교육학과의 M군은 세부전공의 선택을 위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관련 전공도서들을 읽으면서 모색을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하는 공부가 결국은 세부 전공 내의 주요 관심사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전공학과의 학위논문들을 검색하면서 “동향”을 파악한다. 대학원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세부 전공이 실지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도 한다.

진학을 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학문적 입문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전공의 기초를 다진다. 철학과의 H군은 교양으로 ‘언어철학의 논리’, ‘논리와 비판적 사고’, ‘물리학의 개념사’, ‘예술과 미학’ 강의 등을 들었다. 교육학과의 M군은 부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양을 들을 여유가 없을 정도이지만,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외면”하다시피 하였던 “철학적 사고”에 익숙해지기로 하였다. 대학원 선배가 뒤르켕에 대하여 “스터디” 하자는 말에 “일단 시작”해보기로 하였다. 어떤 세부 전공을 선택하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면서 “어차피 내가 다 공부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대를 다니는 S군은 단대 내의 환경 동아리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한 공부는 아니었지만, 이를 통해서 “공학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지식인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환경과 공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는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철학 관련 책들을 읽고 있다. 지금은 “전공 자체가 힘드니까” 공대 내에서 그런 동아리가 잘 안 되고, 자치모임도 안 되는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전공 공부와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다.

기초 다지기에는 언어 공부도 포함된다. 철학과의 H군은 여유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신앙서적을 보기도 하고 문학책을 읽기도 하지만 영어공부와 고전어 공부를 한다. 구체적으로 영어 공부는 번역을 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하고 있다. 번역을 통해서 자신의 “표현능력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또한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까지 향상된다는 것을 느낀다. 또한 전공 서적은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도록 원서로 읽으려고 한다. 교육학과의 M군은 아예 중문학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공부하는 데 전공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중국어를 도구로 하여 여전히 미국중심적인 학문풍토를 극복하고 동양적 학문풍토를 되살려 보겠다는 것이다.

M 군: 이 선생님들이 가장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 알기 위해 그 분들의 책들을 봐요. 사회학 쪽에서 김윤식 선생님들의 교육역사사회학을 분다든지, 조동진선생님 책을 다시

한 번 본다는지 사회화와 교육 이런 책들을 본다는지 해요. 교육사 쪽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보면 교육학과의 최근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하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과에서 중국어 하는 사람은 없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맹자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대부분 영문 번역본들을 참조하셨어요. 저는 중국본을 봐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가장 최근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중국이 아닌가요? 그런 쪽의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작업들을 해봤고 아직 교수님들을 직접 만나 얘기해보진 못했지만.. ‘이건 어때요’라는 식으로 관련 선배님들에게 많이 물어봤지요.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M군이 중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H군이 중세철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는 그의 표현처럼 M군은 자신의 중국어 어학실력을 좀 더 살려서 그러한 어학실력이 잘 쓰일 수 있는 세부전공을 찾으려고 한다. 즉, 공부를 하며 이끌리는 세부전공을 자신의 전공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연한 기회에 입문하여 공부하게 된 중국어실력을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공을 찾는다는 것이다. M군은 어떤 특화된 능력 없이 대학원 진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이후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는 중국어 어학실력을 특화시키기 위하여 중국 천진으로 6개월 간 어학연수를 갔다 오려는 계획이다. 요컨대, 그는 전공 자체에서의 “재미”와 수월성보다는 도구에서의 수월성으로 “안정적인” 영역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공부라도 철학과의 H군과 교육학과의 M군의 공부의 성격은 다르다. H군이 자신이 학부과정에서 느낀 “재미가 진정한 재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을 하면서 “공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면” 박사과정을 진학하겠다는 내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여유 있게 공부를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M군은 중국연수의 기회비용이 나름대로 크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 “수준을 높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어떤 결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에 눌린다. 게다가 중문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시간표가 “꽉 짜여져” 있다. H군은 공부를 ‘누리지만’, M군은 “안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채우느라’ 마음이 쫓긴다.

## 2) 고시: “시험공부과”와 “학구과” 그리고 “교양과”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크게 법대생들과 타대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법대생들은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70-80%가 고시를 준비하며, 빠르면 2학년 1학기부터 늦어도 2학년 2학기

부터는 고시공부를 시작한다. 재수를 한 사람들은 조금 더 서두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좀 여유가 있다. 법대생들은 대체로 재학 내에 합격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휴학을 한다. 그러나 학생에 따라서는 고시에 합격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시험공부에 편리하게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좀 더 제대로 된 법학 공부를 하면서 법관과 학자로서의 자질을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법대의 K군은 전자를 “시험공부과”, 후자를 “학구과” 혹은 “매니아과”라고 부른다. 반면, 타대생들이 고시 공부를 하는 경우는 수학과 L군처럼 자신의 전공에 적성이 없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공에 적성이 있긴 하지만 법관과 안정된 직장 모두에 대한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고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는 새로운 공부의 대상으로 고시공부를 하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기는 하지만 시험 결과에 치중한다는 의미에서 “시험공부과”에 가깝게 보이며, 자신의 전공과 교양에 대한 폭넓은 관심에 기반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것을 중시하는 경우를 “교양과”라고 부를 수 있다.

법대생 중 “학구과”는 우선 좋아하는 교수의 수업을 듣는 데 반하여, “시험공부과”는 “널널한 과목”이나 시험 준비에 유용한 과목을 선택한다. 법대생들은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서 동일과목이라도 누가 가르치느냐를 중시하는데, 학구과라고 자칭하는 K군은 “높은 수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는 교수의 수업을 먼저 선택하고 “무난하게 가르치는” 교수의 수업을 선택한다. 반면, 시험공부과는 “제대로 듣고 싶은 강의”를 하나 둘 정도 먼저 선택하고 나머지는 “학점을 잘 주는 과목”을 선택한다. 또한 학구과들은 8-9개 정도가 되는 법대 내 학회에 하나 정도는 참여한다. 법대생의 40-50%가 학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문제 출제를 교수가 하고, 학생들은 논문집을 읽거나 그에 대하여 공부를 해서 세미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군은 학회활동도 결국 고시의 2차를 준비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지만, 단순 암기보다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로서도, 또한 법관으로서의 실무에서도 확실한 준비가 된다고 본다. 이처럼 학구과와 시험준비과는 공부하는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고시준비 절차도 약간 다르다.

연구자: 어떻게 준비하나요?

K 군: 학구과랑 시험만 붙으려고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구과는 두껍고 어려운 교과서를 두세 번 읽고 대충 이해를 하고, 교과서, 문제집, 학원강사의 요약서, 판례집을 보는데, 시험만 붙으려는 애들은 입문서 같은 얇은 교과서를 보고, 문제집, 학원강사의 요약서, 판례집을 대충 의우면서 준비해요.

그런데 실지로 학구과와 시험준비과가 법대생 전체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가 보기에 전공강의를 선택할 때에 “교과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수님의 수



업”이나 “학점을 잘 주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시험공부파”다. 하지만 법대 전체 학생 수가 워낙 많고, K군이 보기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에는 “매니아파” 즉 학구파가 많아서 전체 학생들의 경향을 알기는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법대생들은 대부분 “몸을 사려서” 자신이 진지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가 보기에는 “학점에 급급한 것인 양 보이긴 해도 한두 과목씩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사실 학구파와 시험준비파의 구분은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스스로 학구파라고 생각하는 K군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선은 시험에 빨리 붙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으며, 시험공부를 중시하는 학생들도 학과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에서 떨어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구파든 시험공부파든 느끼게 되는 위와 같은 중압감에는 학부만 나와서는 “전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한울대학교 법대생들의 판단이 있다.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법고시의 경우 뽑는 숫자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한다는 생각과 재학 내에 합격해야한다는 이중적인 중압감 때문에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으면 그런 수업을 기피하거나 아예 휴학을 하게 된다. K군은 수업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학구파이므로 아예 한 학기 휴학을 하고 고시준비를 하려고 한다.

K 군: 학부만 나와서는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연구자: 고시가 학과수업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K 군: 수업이 뻘세면 수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한 학기를 휴학하고 고시준비를 할 생각이예요.

연구자: 다른 학생들은 어떤가요?

K 군: 다른 학생들도 휴학을 하거나 주위의 인간관계를 아예 절제하고 고시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대생들은 이처럼 압박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주로 교양을 듣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여유가 많지 않다. 고시공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준비파이든 학구파이든 간에 아침 7, 8시부터 와서 수업시간만을 제외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고시학원을 다니는 분위기다. 그러나 교수들은 “자유롭게 공부하고 교양을 기르라는” 의미에서 의대와 같이 “스케줄을 뽁뽁하게 짜”주지 않고 K군이 보기엔 “방임”한다. 그러나 전공과목 수업을 잘 따라가기가 “뽁뽁하기” 때문에 교수가 방임을 해도 교양을 기르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딜레마”로 다가온다. 그래서 K군도 가끔은 의대처럼 “뽁뽁하게 관리를 해주고 학교 커

리큘럼만 잘 따라가서 졸업해도 법관이 되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K 군: 이번 학기는 일이 많아서 많이 못 하고, 수업을 듣고 남는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이번 학기는 저녁에 바빠서 잘 못하고 있어요. 법대 도서관이나 5층에서 주로 공부해요. 보통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아침 7시, 8시에 와서 법대 5층에서 공부를 해요. 수업 듣고, 공부하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죠. 일단 시작을 하면 그런 식으로 많은 친구들이 해요. 아니면 저녁에는 학원 가고, 그런데 저는 잠이 많아서 그냥 수업 듣고, 저녁에 공부해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K군은 “삼수”를 하고 법대에 들어오면서 정말 제대로 된 법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교양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는 중앙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른 단대 내에서도 좋다고 소문이 난 수업을 찾아 들었다. 이는 법대 내에서도 특이한 경우로 대부분 다른 법대 학생들은 전공과 시험에 모두 관련이 있는 학회활동만 할 뿐 그와 무관하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앙 동아리 활동은 잘 하지 않는다. 법대생들에게 중앙 동아리 활동은 그들의 표현을 빌면, “자살행위”다. 그들은 필요한 내용을 ‘채우느라’ 여유를 갖고 공부를 ‘누리지를’ 못한다.

법대가 아닌 다른 단대에서 고시를 선택하는 경우 고시공부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른 위치를 차지한다. 그들은 전공과 무관한 고시공부를 독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법대생들처럼 재학 내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택하며 시간을 두고 자신의 전공과 대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법관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학하자마자 처음부터 재학 내 합격이라는 외재적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과 다양한 공부와 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고시 공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독문과 3학년인 N양에 따르면, 요즘 인문대생들은 1/3은 취직, 1/3은 고시, 그 외에는 대학원이나 다른 길을 간다. 그녀는 과의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독문학을 좋아하고 다른 교양보다 전공과목을 더 많이 들었을 정도여서 대학원을 진학할까 하는 고민도 하였다. 그러나 독문학은 여러 경험을 쌓은 후에 취미로 해도 된다는 가족들과 과 교수의 조언을 듣고 난 후 고시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 2학년 2학기였고 겨울방학 한 달 정도 고시학원을 다니면서 헌법을 들었다.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고생도 하였지만 학원선생님들이 “딱딱 짚어주어서”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복습을 하지 않아서인지 “돌아서면 모르겠다”고 하였다. 게다가 N양은 2006년부터 새로 입법이 되어 법대 학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지난 학기 법학과 수업을 들으려고 한 적이 있다. 그 때 그녀는 이렇게 고시 자격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다.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들어 보았던 강의는 N

양에게 “보통 지켜온 일”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고시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잠시 “고시를 접기”로 했다. 그녀는 급하게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면 “대학생활”이 아쉬울 것 같았다. 그래서 오히려 책도 읽고 사람들과 과 행사에 참여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친구와 평전 읽기를 하고 있다. 체 게바라로 시작하여 지금은 맑스 평전을 읽고 있으며 일주일에 반 권정도 읽고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다. 예전에는 “효율성을 따져서 뭔가 해야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든지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공부들이 법관이 되고 나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스스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가능한 것을 그녀는 자신이 인문학을 공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고시를 준비하는 데 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연대 학생에게도 나타난다. 수학과 L군의 경우 고시를 보겠다고 마음먹고 지난 2학기에 민법 강의를 법대에서 처음으로 들었다. 법대 강의 중에서도 모든 종류의 고시에 다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헌법과 같은 강의들은 워낙 많은 학생들이 들으려고 해서 “넣기가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컴퓨터 앞에서 계속 “넣다가” 운이 좋게 수강신청이 되어서 들었는데 그에게 그 강의는 그의 표현을 빌면 “culture shock”이었다. 그가 보기에 자연과학처럼 특정한 원리나 법칙이 없는 이런 분야의 공부야 그냥 책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직 논리적으로 글 쓰는 연습이 부족하여 결국 학점은 잘 못 받았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법공부는 실생활과 관련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 그는 공익근무를 하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오랜 기간을 두고 고시공부를 할 생각이다. L군도 N양과 마찬가지로 좀 늦게 합격하더라도, 제대로 전공을 듣고 공부하여 학사논문은 쓰겠다고 생각한다. “남는 것은 졸업장 한 장”, 이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시험공부과”, “학구과”, “교양과”는 실지 학생들에게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앞서 정리한 공부 기준인 “안정”과 “수월성”, 그리고 “재미”라는 기준에 서로 다르게 이끌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대의 시험공부과는 재학 내 합격이라는 외적인 인정과 안정을 위하여, 학구과는 때로는 제대로 된 법공부를 하고 싶어서 혹은 전문변호사로서의 수월성을 얻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한다. 반면, 교양과는 “효율성”보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다소 늦더라도 폭넓게 다양한 교양을 쌓아 제대로 된 법관이 되는 것을 중시한다. 공부 자체의 효용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내적인 만족과 가치에 초점을 두며, 장기적으로 보면 교양의 획득이 좋은 법관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고시공부 역시 필요한 것 채우기에 급급한 공부와 누리는 공부로 구분된다.

### 3) 취업: 직업능력 쌓기 그리고 다양한 체험하기

취업을 준비하는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전공에 따라 전공 외에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쌓아야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전공 공부가 곧 직업능력과 직결되는 경우도 있다. 수학과와 K양은 보험회사에 취업할 생각으로 인턴쉽 과정을 밟는 등 취업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 비하여, 전자공학과와 Y군은 전공공부만 열심히 한다. 순수학문인 수학과 보험회사에의 취업은 관련성은 있지만 차이가 많은 반면, 공대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과제를 해나면서 얻어지는 능력이 더 직접적으로 직업능력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직업능력을 쌓는데 전공공부 외에 별도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직업능력을 쌓는 “공부”는 필요한 만큼만 채운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다양한 공부와 체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수학과 4학년인 K양은 3학년 때 선배 소개로 인턴쉽 과정에 지원하여 한 달간의 합숙과 두 학기 동안의 사이버 강의를 수강하였다. 인턴쉽 과정에서 3학년 여름 3박 4일 정도 합숙을 한 후 3주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인턴쉽을 체험하였다. 그 이후 첫 학기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8과목을 수강하였고, 겨울에는 영어교육을 받았으며 4학년 1학기에도 계속 사이버 교육으로 4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주로 비즈니스 관련 과목과 어학, 컴퓨터 등인데, 비즈니스 과목은 약 30개 정도 되는 과목들 중에 4개를 선택하였고, 어학은 영어, 일어, 중국어 독해와 회화들 중에서 두 과목을, 컴퓨터 역시 OS체계, 프로그래밍, 홈페이지 만들기 등의 범주 아래 개설된 십여 개의 강좌 중 두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해야 했다. 4학년 1학기에는 학과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2, 1, 1로 줄였다. 각 강의는 20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강을 보는 데 약 1시간이 걸렸다. 또한 중간 시험, 기말 시험도 있고, 레포트가 5개인 과목까지 있었다. 시험과 리포트 이 모든 과정이 심사의 대상이 되어 수료 여부가 결정되며 그것에 기반하여 채용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너무 힘들었지만 다행히 K양은 지난 학기 사이버교육으로 채용이 결정되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듣는 것은 최근에 많이 보편화된 일이다. 그런데 K양에 따르면, 그 내용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강의와 사이버 교육 등은 모두 비즈니스와 회사생활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다. 영어도 비즈니스 관련 영어이며, 일어도 그러하다. 인터넷 마케팅과 같은 과목들은 어떻게 고객을 공략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경제학 원론과 같은 강의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들었던 강의와는 전혀 달랐으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정리되어 있을 뿐, 학문적인 안목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인턴쉽 과정에서 들은 사이버 강의들은 다양하기는 하였지만 깊이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들은 회계원리는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대차대조표를 그리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 역시 필요만을 충족시키면 되므로 그 이상을 찾아보고자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영어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녔다. 영어는 취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컴퓨

터는 3D를 배웠는데 이것은 취업과 무관하게 “그냥 재미로” 배운 것이다. 배우면서 “거기에도 수학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새삼 수학이 재밌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공 외에도 K양은 대학에서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양들을 모두 찾아 들으려고 한다. 미술 과목들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두 과목이나 듣고 있다. 또한 전공 강의도 여러 개 듣고 있다. 면담하는 기간이 축제 기간이었지만 그녀는 과제물이 너무 많아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여 준비하느라 거의 놀지 못했다고 했다. 전공의 과제물의 경우 어려운 과목은 한 문제 푸는 데 4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다. K양은 자신이 “이것저것 들쭉시고 다니는 형”이고 “성격상 파고들지를 못해서” 진학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 4년 동안 배운 수학은 그녀의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아직까지도 도전의식을 준다고 했다. K양은 이렇게 취업을 위해 필요한 인턴십 과정을 채우면서도 마지막 남은 대학생활을 제대로 누리기로 한 것이다.

### 3. 방식: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채우기와 누리기로 그 성격이 구분되는 한울대 학부생들의 “공부” 방식은 구체적으로 수학과 K양과 같이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학교 내에서의 수업과 수업 외 활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수업은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학생들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만, 학년에 따라, 전공에 따라,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에 따라, 함께 배우는 학생들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또한 동아리, 학회, 스터디 등을 통하여 그들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구성해 가기도 한다. “공부”하는 방식은 특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주로 학점이라는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옮겨간다. 이는 학년이 올라가면서 대학에서의 교육적 체험이 쌓이고 그에 따른 가치기준이 형성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1) 수업: “부담분배”와 “정공법”

학부생들에게 수업은 그들의 공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점이수와 취득, 졸업 등과 연계되어 대학교육의 공식적인 면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 그 만큼 어떤 수업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부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필요 학점을 이수하면서도 적절한 학점을 취득하는 동시에 그 시간을 통한 내적인 가치체험과 성장 등을 누리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취한다. 그것이 “부담분배”와 “정공법”이다.

## (1) 수업 선택 전략: “학점관리”를 위한 “필요”-“재미”-“널털”

본학기, 즉 봄학기과 가을학기 수강이 이루어지는 3월 초와 9월 초,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느라 바쁘다. 전공 수업은 주로 선배들의 조언을 얻고, 교양 수업은 학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인가강좌에 대한 정보나 타단체에 있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어 선택을 한다. 특히 교양의 경우 “일단 재미있고”, “가르치는 분의 경력이 화려”하고, “명성대로 잘 가르친다”는 입소문이 돌고 거기다가 선배들이 “꼭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 후배들은 “잘 모르면서도 듣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최대 21학점까지 들 수 있으며 대체로 평균 17학점 안팎의 학점을 한 학기에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수업만을 들 수 없다. 수업을 선택하는 전략이 적용되는데 그 전략은 “필요”, “재미”, “널털”의 순서로 수업을 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시나 취업에 필요한 과목이나 전공 필수 등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의의 먼저 선택하여 시간표를 채우고 난 뒤, 들어보고 싶었던 전공 강의나 교양 강의를 찾아서 시간이 맞는 한 시간표를 채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강에 부담이 없고 학점을 잘 주고 시간도 적절한 소위 “널털한” 수업, 즉 “전략과목”을 선택한다. 전공이 중요한 경우는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순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며, 교육학과의 M처럼 중문학을 부전공으로 하려고 하거나 전공과 무관하게 고시공부를 하는 경우 부전공필수, 고시과목을 우선 배치하고 난 다음에 전공, 교양 등을 선택하게 된다. 필요와 재미에 따른 선택이야 학점과 무관하게 들겠지만, “널털한” 강의라 해도 자신의 “흥미와 거리가 멀다”면 학점을 잘 준다고 해도 선택하지 않는다.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Y 군: 꼭 들어야하는 전공필수가 우선이고, 한 과목에 교수님이 3-4분이 계시니까, 강의계획서는 도저히 참고하기 힘들고, 보통 과선배나 주위의 소문을 통해 교수님을 선택하지요. 전공선택 중에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넣고, 교양은 시간을 보고 적절하게 넣습니다. 중략.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과목, 나하고 잘 맞는 과목인 듯싶은 강의들을 선택하구요. 학점이나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이나 흥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양미술사 같은 과목은 나의 흥미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점을 잘 준다고 해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요.(자연대 학부 2년생)

본 학기의 강의 선택이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학점을 관리”하되 수업 “부담을 나누기” 위해 “안배”를 하는 것이다. 필요한 학점은 취득해야 하고, 각 수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 경우 모두 따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의 선택의 전략은 여름 계절 학기를 듣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학생들은 1, 2학년 때 “노느라 망쳤던” 강의들을 재수강하며, 학점이 터무니없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이나 진학에 유리하도록 좋은 학점을 받으려고 재수강을 하기도 한다. 또한 한 학기 내에 들어야 하는 강의들을 제대로 듣기에 부담이 되기 때

문에 교양 강의들을 나누어 듣기도 한다. 독문학과와 N양은 고시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다음 학기는 법대 수업을 위주로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방학 때 하나라도 개설되면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또한 과제가 많다고 소문이 난 대학국어를 계절 학기에 듣고 우연히 시간이 남아 교양으로 인간생명과학개론도 들었다. 교육학과와 M군과 같이 부전공을 하는 경우 학점의 부담은 더욱 커져서 때로는 같은 학기에 부전공과 유사한 내용의 교양을 동시에 선택하여 공부 부담을 줄임으로써 “필요”한 강의들을 스스로 “널럴”하게 만들기도 한다.

1, 2학년 정도까지는 위와 같이 “필요-재미-널럴”의 순서에 따라 강의를 선택하는 “부담분배” 전략을 택한다. 그러나 3, 4학년이 되면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고 전공에 대한 나름의 안목이 생기고, 대학교육의 가치를 깨달아가면서 수업에 대한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된다. 교육학과와 S양은 전공 선택의 경우는 때로는 “안 들어본 과목은 있지만 어떤 성격인지 알 것” 같아서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들어야 되는데 들을 게 없다”고 푸념하였다. 또한 “전략과목”을 들으면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코드를 맞추기”보다는 학점이 잘 안 나와도 첫 수업에 들어가 “끌리는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 “전략과목”보다는 “힘들고 학점이 안 나와도 재밌고 좋아하는 수업”을 선택하는 “정공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S 양: 기준은 그다지 없고, 끌리는 걸 하는데, 그게 내용 자체가 찾아보고 공부하는 부분이 일단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면 들어가는데 첫 수업에 들어가서 괜찮으면 선택을 하거든요. 저는 널널한 수업보다 부담 있는 수업이 좋구요. 친구들 얘기 듣고 전략과목을 들어봤는데 전략적인 코드를 맞추는 것 예를 들면 내용보다 분량이 중요하다는 그런 조건을 맞추는 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힘들고 학점이 안 나와도 재밌고 좋아하는 수업을 듣자 그래서 그냥 들어요.

이러한 “정공법”은 법대의 학구파들이나 고학년들의 교양 과목 선택에도 해당된다. 시험공부과는 “널럴한 과목”이나 “시험준비에 유용한 쪽”을 택하지만, 학구과는 학점이나 수업 부담과는 무관하게 좋아하는 교수의 수업을 들으려고 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학과와 K양도 훌륭한 교수에게서 좋은 강의를 듣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교양과목은 “정말 배우고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택한다. 그리하여 고학년이 될수록 “필요”해서 듣는 과목들은 “억지로 듣는 과목들”이 되고, 그 과목들은 열심히 공부하기는 하지만 “재미와는 별 상관이 없다.” K양의 표현을 그대로 빌면, 대학을 떠날 준비를 할수록 “필요해서 하는 공부”와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가 확연하게 양분되고, “널럴”해서 듣는 전략과목은 점차 줄어든다.

## (2) 수강 방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과목에 어떤 가치를 두고 선택했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강 태도는 달라진다. 학점 이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들 표현을 빌

면, “꾸역꾸역” 시험을 보고 “꾸역꾸역” 학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방식은 수업을 선택할 때의 마음가짐과는 별도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 변수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을 선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래에서는 전공 자체의 특성에 따라,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배우는 동학들에 따라, 마지막으로 수업방식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 ① 전공에 따라

한울대학교에서 전공은 크게 인문대, 사회대, 법대, 사범대, 경영대, 자연대, 공대, 생활과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각 단과대는 제도상의 변화나 사회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수업의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수강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연대는 학부제 때문에, 경영대와 법대는 고시나 취업에의 유용성 때문에 대형 강의가 되거나 실용성에 치중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자연대 학부제를 경험했던 L군은 적어도 100명 많으면 300명이나 되는 대형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가 “학원 강사” 같다는 말을 했다. 게다가 학부제가 되면서 자연대 학생이라면 물리, 화학, 수학, 계열 기초 등을 모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해당하는 동일강좌가 여러 개가 되고, 그 강좌에서 얻는 학점으로 이후 전공이 결정되기 때문에 강좌마다 같은 시험으로 평가를 한다. 따라서 그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님들은 “진도를 나가느라”, “다른 선생님과 맞추느라” “개성”을 살릴 수 없다. 과학고 출신인 그가 보기에는 학급당 27명이었던 고등학교 수업이 오히려 “정감도 있고, 질문도 쉬웠다”. L군은 학부제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고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주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L 군: 자연대 강의 중 유명한 강의는 다 대형강의예요. 주로 물리는 과목인 역학이라든지, 미적인데, 이런 건 무조건 들어야 하고, 그래서 큰 수업은 다 대형강의고요. 또 자연대는 책이 두꺼운데, 진도를 나가느라 선생님이 바빠지는 거죠. 그리고 큰 강의는 대개 보면 동일한 강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시험을 같이 쳐야 하니까 다른 선생님과 맞춰야 하고요.

연구자: 그럼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다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선생님의 특성은 반영이 안 되나요?

L 군: 네, 그렇죠. 개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대형 강의는 학부제와 같이 대학의 학제나 행정상의 문제에서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경영대의 경우 경영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영대를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선택하는 타대 학생들, 그리고 취업, CPA 고시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까지 있어서 대부분의 강의가 수강생이 보통 200명이 넘는 대형 강의를 되어버린다. 경영대 다니는 Y군은 그런 강의는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말한다. 리포트도 “책에 있는 것을 옮기고



인터넷에서 찾는” 식으로 “벼락치기”로 준비한다. 시험 역시 2학년 정도 되면서 “요령”이 생겨서 “교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눈에 보이고”, “이런 과목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는 게 보였다. 리포트를 “그냥 내기만 하라”고 아예 처음부터 말하는 교수도 있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리포트와 시험을 모두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시와 무관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법대 역시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식을 고정시킨다. 법대의 K군은 “의의, 요건, 효과 순”으로 글을 쓴다는 말로 법대생의 공부 방식을 요약하여 말한다. 교수가 사례를 가지고 시험을 낸다고 하면 학생들은 “그 판례에서 비판하신 점을 외워놓고, 약술 같은 문제는 교과서 목차를 외워서 쓴다.” 한 눈에 목차를 외우고 그것을 그대로 적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공부하는 방식을 “사진 찍는다”고 표현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법고시 2차 시험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시험은 서술형이고 “암기만 하면 못 치니까” 학구파들은 “공부할 맛”이 나지만, 1차 시험은 “단순 암기”여서 “학구파” 법대생들과 교수들은 불만이 많다.

K 군: 선생님이 사례로 낸다고 하면 판례에서 비판하신 점을 외워놓고, 약술 같은 문제는 교과서 목차를 외워서 쓰는데, 흔히 법대생은 의의, 요건, 효과 순으로 쓴다는 말이 그런 예죠. 그게 사법고시 2차 시험이에요. 2차 시험은 사실 공부할 맛이 나고, 1차 시험은 단순암기문제이고, 그래서 법대생이나 교수님들은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전체적인 체계 같은 것을 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판례를 외우는 것은 나중에 실무를 하면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인데, 시험이 그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학구파들 숫자가 모자란 것이죠. 그래도 2차는 서술형이고 그래서 암기만 하면 못 치고, 그래서 2차를 더 좋아하죠.

법대 강의는 게다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K군이 생각하기에 “학생들은 어떤 것을 창출해내기 힘들고, 선학의 성과를 흡수하는 데에도 벽차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간, 기말 시험만 있고 리포트나 토의 같은 것은 없는 편이다. 때로 K군은 그런 수업방식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학생들이 “놀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 학기 내내 놀다가 기말시험을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K군은 때로 “스케줄을 딱딱하게 짜주어서 학교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서 졸업해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실력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교수들이 때로는 “방임”한다는 생각이 든다.

공대의 경우는 전공의 특성상 과제가 많다. 공대생들은 과제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전자공학과와 O군에 따르면, 1, 2학년 때는 과제가 별로 없지만 3, 4학년 때가 되면 많아진다. O군이 듣는 전공과목 중 세 과목이 과제가 있으며 그 세 과목이 번갈아 가며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과제가 없는 주는 거의 없다. 그는 과제를 몰아서 하는 편인데 한 과제를 하는 데 8-9시

간 정도를 할애한다. 그래서 시험공부에 크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전자공학과와 O군은 교양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점이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지만, 전공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학점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되며, “다음에 써먹을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단대별 전공의 특성은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 수강 방식을 좌우하는 제도적 조건이다. 학부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리고 보편적이고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형강의와 전공필수과목의 축소로 전공 지식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학과의 공동체적 특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신현석, 2005: 239-241). 법대와 경영대 강의는 그 강의의 실용성 때문에 인기강좌가 되어 대형 강의를 되고 그 결과 “교육”이 획일적이고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생들은 바로 그러한 주어진 제도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공부”를 해나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곧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 ②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수업을 선택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수강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자신이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에 의하여 적극적인 수강태도로 바뀔 때도 있다. 한울대학교 학생들은 수강태도를 좌우하는 교수의 태도로 크게 “열성”, “배려”, “준비”, “학자다움” 등을 들었다. 앞선 세 가지는 교수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태도라면 뒤의 것은 연구하는 자로서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앞서도 정리한 바와 같이 경영대는 200명씩 듣는 대형강의들이 많다. Y군은 그런 대형 강의를 들으면서 대학에서의 공부가 그다지 고등학교 때의 공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강의들도 있었다. 1학년 때 200명이 듣는 대형 강의였는데 교수님은 학생들의 리포트를 모두 읽고 평을 해주셨다. 그런 리포트를 다시 받아든 Y군은 열심히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학점과 관련이 있기도 했지만 “내는 데 의의를 두시는 분”이 강의할 때와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독문학과의 N양도 강의방법과 관계없이 “열성이 있다면 전달은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선생님 위주”로 강의를 선택한다. 선생님이 가르치려는 열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민감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 온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생님이 “최고로 노력하지 않으시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열성”은 “준비”로 드러난다. 학생들은 “많이 아시는 분”과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을 구분할 줄 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학생들이 어떠한 수준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강의를 준

비하지 못하고 “실제로 전달이 안 되면” 교수도 학생도 “서로 답답하다”. 이 경우 학생들은 때면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강의에 몰입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수업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가령, 대형 교양강의의 경우 조를 짜서 토론이나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조를 짤 때 학생들 재량에만 맡기면 발표나 토론이 “시간 때우기”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독문과의 N양이 수강한 ‘예술과 사회’라는 과목은 그렇지 않았다. 80명이 듣는 대형 강의였고, 전반부는 강의를 하시고, 후반부에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주제를 잡게 하여 발표를 하는 것이었는데 교수는 자신과 상의 하에 주제의 수준을 정하고, 인터넷 상에 커뮤니티를 열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학점과 연계하여 발표가 제대로 되도록 유도하였다. N양이 보기에 교수가 “세심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어서” 학생들이 열심히 한 것 같다. 철학과의 H군이 골라서 듣는 강의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교수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생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 자연대의 경우도 학부제로 인하여 대형강의들도 많고 진도를 나가는 데에 급급하지만 C군이 보기에 교수에 따라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질문할 시간도 넉넉하게” 주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늘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수도 있다.

C 군: 우선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질문할 시간도 참 넉넉하게 주셔서 받아서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대형강의는 원래 질문을 하기도 그렇고 진도 문제도 있는데 그 교수님의 경우는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은 질문을 해서 알고 넘어가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은 진도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바쁘게 하시는데, 미리 연습을 해서 아니면 되게 감각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그때 그 때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런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광학도 어떻게 하면 설명을 잘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많이 들어서 하시려고 하시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교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높아지고 세밀해진다. 학부생들도 “학자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다. 교육학과의 S양은 “내용은 적으면서 나머지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수업”, “학자로서의 면모나 책임감이 안 보이는 수업”, “이미 들었던 수업보다 설득력이 적은 수업” 등이 불만스러웠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불만스러운 수업은 사실 모두 자신이 가르치는 학문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부족한 수업이었다. 그녀 역시 “강의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으며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이 중요하고, “진짜 공부하는 교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학자다움을 몸으로 보여주는 교수들의 강의는 수강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학자로서의 철저함”을 느끼게 해준다. “겸손”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한다. 학생들은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관점이 변했다”, “옛날 친구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고 학자로서의 태도, 공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S 양: 그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 한창 새로운 교육학 이론을 만들려고 할 때는 막말로 맨땅에 헤딩하기였다고 강의 시작하기 몇 분전까지 정리가 안 된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었다고, 그 때 생각하면 큰 병이 들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힘든 작업이지만 교육학을 하면 할 만하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먹었어요. 학자의 철저함이 있었어요. 이 이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안주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바꾸어야 한다고.. 조금 아는 것으로 많이 아는 채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시다.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학자로서의 철저함이 있는 교수의 강의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단편적 지식”들이 “한 흐름 속”으로 정리가 되어 “머릿속이 뻥 뚫리는 느낌”, “굉장한 것을 깨달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반증이며, 그런 느낌이 있고 나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공부도 더 잘 된다고 한다.

### ③ 배우는 사람에 따라

때로는 함께 배우는 동학(同學)들의 태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강 태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철학과 H군이 보기에 학점을 떠나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숨겨진 뜻도 알아내는 것 같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수강생이 적은 강의일수록 그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수준이 높은 강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작은 강의는 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며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동학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도 있다. 전자공학과와 O군도 아무래도 남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자신도 “더 열심히는 못 해도” 열심히 하게 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심지어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고양된 체험을 함께 나눈 학생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법대의 K군은 독문과에서 ‘독일명작의 이해’ 수업은 꼭 들어봐야 한다는 입소문을 듣고 수강을 하였다. 그 수업은 2학년 한 해에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다. 고전을 읽으면서 인간의 본질을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몇 개나 더 생긴 것 같았다. 이 체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더 깊어졌다. K군은 그 친구들을 알게 된 것이 매우 “대견스럽고”,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감”이 “생존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본질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터

넷 상에 만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

#### ④ 수업 방식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울대학교 학부생은 수업방식이 수강방식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수들이 “열성”적으로 자신들을 “배려”하면서 “준비”해온 수업들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학생들마다 수업방식에 따른 선호가 생기기도 한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태도와 겹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기억에 남는 수업은 대체로 학생 수가 적은 수업, 교수님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있는 수업이다. 자연대의 Y군에 의하면, 학생 수가 많으면 게을러지고, 뒷자리에서 졸고 빠지기도 쉽다. 대형 강의에서는 교수도 역시 그런 학생을 봐도 포기하게 된다. 또한 일방적인 강의보다 피드백의 통로가 있는 수업, Y군의 말을 빌리면, “하다못해 계시관”이라도 있는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자발적인 활동이 있는 수업이 기억에 남는다. 교육학과의 S양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주는 수업과 자신이 “실제로 활동을 해봐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비교교육학’ 수업을 들으면서 참여관찰을 하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문헌도 찾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공부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학생 수가 적다거나 피드백이 있다거나 학생들의 자발적 활동이 요구되는 수업은 한 마디로 학생이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격려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M 군: 시험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영역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 스스로도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자세 자체가 그렇게 되요. 일단 시험의 틀 안에 들어가는 과목들 같은 경우 그렇게 되요. 리포트는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기니까 천천히 곱씹어볼 수 있는데 시험은 대개 닥쳐서 하게 되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없게 되지요. 리포트는 참고 문헌 속에서 또 참고 문헌을 찾게 되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되니까 오히려 내가 어느 범위까지 얘기해야 하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점도 있어요. 그래도 리포트를 더 선호하는 편이지요. 그리고 더 재미있구요.

연구자: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인가요?

M 군: 그렇지요. 대신 리포트의 문제점은 맥락은 기억이 나지만 본문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시험은 외우는 거니까 기억에 남는데 리포트의 경우는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점에서 한울대학교 학생들은 시험보다는 리포트로 평가를 하는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학과의 M군의 말에 따르면, 리포트는 시험보다 오히려 “재미”있다. 시험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영역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리포트를 준비할 때는 “곱씹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참고문헌 속에서 생각이 “확장”된다. 그래서 시험은 보

고 나면 단편적 “내용”이 기억나지만 리포트는 쓰고 나면 그 “맥락”이 기억난다. 자연대의 Y군 역시 리포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이해해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참고문헌을 찾아야 한다. Y군은 성격상 “베껴내는 것”이 되지 않아 시간이 안 되면 숙제를 안 내고 나중에 공부를 하여 시험을 잘 치겠다고 포기할 정도로 리포트를 제대로 써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분명 자율적으로 공부를 찾아나가는 체험을 하고 이를 통해 공부의 깊이와 내용이 확장됨을 느낀다.

전공에 따라, 가르치는 교수에 따라, 동학(同學)에 따라, 수업 방식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달라진 태도는 이후 수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게 된다. 교수가 열성과 배려로 준비를 다하고, 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학자로 학생들에게 다가설 때,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자율적으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가능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지도를 교수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을 하게 될 때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수업에 대한 가치 기준을 세우게 되고 힘들더라도 부담분배 전략을 탈피하고 정공법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앞선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업의 제도적, 학문적, 사회적 조건과 교수, 학생, 그리고 수업 방식이라는 변수가 모두 작용한 결과이다.

## 2) 수업 외 활동

수업 밖의 활동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존립하게 된다. 한울대학교 학부생들도 전공이나 취업, 취미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동아리와 학회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박상옥, 2001). 동아리와 학회가 번성하였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과는 아주 다른 대학의 모습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으로 주어진 수업 외에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공부”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 (1) 동아리

한울대 학생들에게 동아리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동아리”와 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대동아리”가 있다. 학과 내의 동아리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학회”라는 말로 주로 불린다.

학생들은 모두 요즘 동아리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대의 K군은 한 중앙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중앙동아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시생에게는 “자살 행위”다. 중앙동아리는 비고시생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술도 많이 마시고 놀러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재학 내 합격을 목표로 하는 법학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법대 내에 있

는 노동법연구회나 법대연극부와 같은 단대 혹은 학부 동아리도 중앙동아리 같지만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런 동아리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동아리활동은 때로는 술 마시고 노는 데 치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미나와 같은 “공부” 활동이 늘 동반된다. 공대의 환경 동아리에 참여했던 S군은 환경동아리를 다니면서 공학이 “과학과 인문사회의 접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대생은 “무식”하다고 하고 사회에 관심이 없고 책도 안 읽고 전공만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그도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고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인문사회분야까지 알고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최근 사진도 배워 사진을 찍으러 다니며 철학 공부까지 하고 있다. 이는 모두 환경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지게 된 관심에 따른 것이다.

S 군: 일반적으로 공대생이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사회에 대해 관심이 없고, 책도 안 읽고 전공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공학하는 사람이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공학이라는 것이 제 판단으로는 과학과 인문사회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학만 알고 맞추려고 하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인문사회분야까지 알고 고민을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구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S 군: 저는 공대에서 환경동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공부를 좀 했구요. 환경문제를 보면 여러 요인이 많지만, 공학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지식인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니까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S군의 판단에도 그 환경동아리는 “망해간다.” 공대에서는 워낙 전공이 힘들어서 그런 동아리가 잘 안되고, 자치모임도 잘 안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단대별 차이가 없이 모든 학습 동아리에 그리고 대체로 학과 내의 학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 (2) 학회

학회는 과마다 다양한 수로 존재한다. 법대나 공대처럼 단대별로 학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과별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같은 단과대 혹은 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활과 훨씬 밀착되어 있어서 동아리보다 학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면담한 학생에 한정지어 말하면, 교육학과가 6개, 독문학과가 5개로 학과 학생 수 대비로 볼 때 가장 많은 수의 학회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회 역시 이전보다 훨씬 활동이 축소되어가는 것 같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교육학과 S양은 처음에는 시사, 교육, 철학, 역사 등 거의 모든 학회에 참여를 하다가 철학학

회에서만 주로 활동하였는데 최근 그 학회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날라리 학회”라고들 하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전복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후배들의 말에 놀라워하기도 했던 학회였다고 생각하고 성공적인 학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는 후배들이 없어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S 양: 저희 학회가 저희 과에서 가장 날라리고 02년도에 없어졌거든요. 분위기가 커리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사람들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발제도 잘 안 하고 자기 아는 밑천 다 들고 와서 토론하는 학회여서, 1학년 때는 선배들이 자기 밑천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워하곤 했어요. 제가 선배가 되었을 때에는 제 생각이 전복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예상치 못한 후배의 말에 놀라워하면서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닌가 봐요. 드디어 그 날라리 학회 없어졌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구요.

학회마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세미나를 한다. 독문과의 N 양은 5개나 되는 학회 중 시사언론학회에 참여했었다. 처음에는 선배들과 친해지면서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신문, 대중문화론 입문서를 가지고 세미나를 했고, 때로는 연극이나 영화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학회에 따라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강의에서는 학점 때문에, 혹은 교수의 권위에 눌러 학생들의 질문과 다른 의견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회에서는 자유롭게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선배들 역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모르는 것은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선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읽고 찾아보게 되고, 후배들은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드러내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교육학과의 S 양은 “많이 깨졌고” 자신의 생각이 경직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독문과의 N 양의 말을 빌면,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안이하게 살았구나”하는 깨달음이었다.

N 양: 제가 접해본 대학생들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들어오자마자 경제적으로 그런 학생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도 있고, 막연하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의도하지는 않아도 세미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말이지요. 중략. 세미나 같은 걸 통해서 라든지, 뭐 그렇게 교류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경제 사람들 같으면 다른 게 느꼈는데,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안이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은 수학과에 K 양, 전자공학과에 O 군에게도 적용된다. K 양은 수학과에 두 개 밖에 안 되는 학회이지만, 여성학회에 들어 세미나를 하면서 여성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O 군은 학과내의 신문편집부와 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다. 공대에도 마르크스학회, 한총련 관련학회, 과학과 사회학회 등 3-4 개의 학회가 존재했다. 지금은 학생들이 점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학회가 모두 망해 가는 추세”이지만 공대생인 자신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이 학회들을 통해서였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존경할 만한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 마치 교수님의 태도에서 따라 수강 태도가 달라지듯이, 선배들과 친구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독문학과와 N양도 “열심히 산다”는 것이 중요하고,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 (3) 스터디/독서모임

스터디는 동아리와 학회처럼 나름의 제도화된 틀 없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일시적인 공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필요에서 스터디를 한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하기도 하고, 공동의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하기도 한다. 교육학과의 M군의 경우 공부방 교사로서 활동하면서 같은 교사의 제안으로 교육철학개론과 교육사회학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주로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었지만 공부방활동과 책의 내용을 관련지어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자신이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 M군은 누군가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며 부담을 주면 꺼려하고 “공부”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때로는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도 혼자서 혹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재미있게 했지만 복수전공으로 듣게 된 중국어수업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것은 다른 수업에도 적용이 된다. 그가 보기에는 교수님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강의에는 모두 “정답”이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입을 다물게 된다. 시험에 “정답”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는 심지어 리포트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수업의 경우, 교수에 의해서 특별히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없는 경우보다는 자발적 관심에 의해서 구성되는 스터디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스터디는 주로 서로의 취향과 관심을 잘 아는 친구들이나 선배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독문과의 N양의 경우 친구와 요즘 평론읽기를 하는데 친구가 인물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했다지만 자신도 체 게바라나 마르크스의 평전을 읽고 친구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고시를 공부하려는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때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생긴다. 교육학과의 S양은 독서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라면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냐”는 지적을 받은 후 자신의 생각을 형성해나가게 된 것 같다고 말한다.

S 양: 그 전까지는 날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러니까 자유롭지만 책임도 강하게 된 것 같고 내 주장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독서토론회를 했는데, 제

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자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생각이라면 왜 그렇게 정리가 안되냐고 그러더군요. 그럴 때 아! 내가 지금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동아리나 학회,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교육학과 M군의 지적처럼 정답도 없고 틀도 없이 자유롭게 선배와 동기들 간의 사고 실험과 토론이 가능하다. 또한 독문학과 N양이 말하듯이 교수와 달리 자신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배와 동기, 그리고 후배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체험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업 외 활동의 위축은 분명 고등교육, 특히 학부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 Ⅲ. 고등교육의 질: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학원 진학, 고시,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한울대 학생들은 그 방향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안정”된 미래를 ‘수월성’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 너머의 “재미”와 “의미”를 추구한다. 그것은 실제 공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우기’와 ‘누리기’로 나타난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수업 선택과 참여방식에 있어서 학점관리를 위한 “부담분배”를 중시하지만 점차 “정공법”을 택하게 되며 동아리, 학회, 수업 외 활동도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된다. 즉, 결과중심보다는 과정중심으로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처럼 한울대 학교 학부생들이 보여주는 “공부”의 기준, 성격, 그리고 방식은 어느 누구도 ‘필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동시에 그 너머를 추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공부”가 보여주는 이러한 이중성은 고등교육의 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구를 통해 드러났듯이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학제상의 특정 단계의 교육적 체험은 그 전의 초중등교육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질을 지닌다. 그 질은 바로 “공부”의 이중성에 대한 자각의 과정으로 크게 세계, 교육,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의 형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첫째, ‘세계의 중층성에 대한 깨달음’, 둘째, ‘교육적인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를 구분하는 안목의 형성’, 셋째, ‘소극적 자유에 근거한 적극적 자유를 살기’로 그 교육적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초중등교육의 단계에서도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단계의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에 ‘맹목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을 교육의 주체로 ‘자각’하지 못한다. 그와 달리 고등교육은 생존을 위한 삶과는 다른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배움의 주체로 자신을 자각하며, 그 기준과 자각에 기초하여 이후 자신의 삶의 방향을 판단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즉,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sup>5)</sup> 아래에 서는 바로 이러한 자각, 거듭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세계의 중층성에 대한 깨달음

M 군: 외삼촌 외숙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지요. 뭔가 재미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하는 게 좋았던 거 같고, 기자를 안 해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 선택에 후회가 없느냐고 외삼촌이 가끔 물으시는데.. 외삼촌은 교육철학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동안 내가 대학원을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곁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거 같아요. 참고로 우리 과는 대학원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 때마다 내가 학문을 계속 할 생각을 안 하더라도 교육학과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고, 세상에 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로운 뭔가가 있다는 것 하나만 알고 졸업하더라도 충분히 이 과에 들어온 보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로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교육학과 M군은 대학에 들어온 보람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가치로운 무언가”는 무엇인가? 수학과 L군의 표현을 빌면, “그냥 알고 싶어서 뒤지고 찾고 알게 되는 가운데 가지는 즐거움, 욕구 충족”이다. 그 즐거움은 아마도 공대의 S군이 1학년 때 들었던 미적분학을 재수강하면서 지금 배우는 전공과목과 “다 연관이 된다”는 느낌, “개별적인 것들 간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신기함”과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교육학과 S양의 다른 표현을 빌면, 이러한 즐거움과 신기함에 “폭 빠지면”, 강의실에 앉아 있지만 “땀 데 와 있는 기분”을 가지게 된다. 이 때 S양이 체험한 세계는 일상의 세계와는 다른 것이다.

“땀 데 와 있는 기분”과 같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은 대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적 배경 속에서만 가능하다. 교육학과의 S양은 “정해진 틀” 없이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싸우고 경쟁하는 장소인 대학에서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는 “삼질했던 경험”을 했고, 그 체험을 통하여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전복되는” 그런 체험을 처음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배움이란 “주어진 것을 빨리빨리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

5) 여기서 “거듭남(重生)”이란 기독교의 용어를 빌어 쓴 것이다. 원래 뜻은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원죄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육체로는 이미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비로소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로 거듭난다는 것 역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것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던 주체가 고등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의미를 깨달은 주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험이 바탕이 되어 수업이 아니어도 공대의 S군은 환경동아리를 통해 공학이 “과학과 인문사회의 접점”이라는 안목이 생겨 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수학과 K양은 취업을 선택했으나 혼자서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여 “나의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위와 같이 그들이 대학에서의 “공부”를 통해서 체험하고 추구하게 되는 세계는 학문(學問)의 세계다. 대학에서 그들이 체험한 학문이 중등교육에서의 “공부”와 다른 것은 그들의 표현을 빌면, “정해진 틀”에 얽매임 없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다. 그래서 전자공학과 K군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에서처럼 “시키는 일만 잘 하면” 되었지만 “학자라면 뭔가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박사과정까지 가는 것을 포기한다. 또한 대학 밖의 사회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좌우하는 세계인 데 비하여 학문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게임 회사에서 군복무를 수행한 수학과 L군은 사회에서는 주로 “실전, 실제 쓸 수 있는 기술”, 혹은 “어떻게 하면 독하게 사는가” 하는 것을 배우지만 대학에서는 비록 “구닥다리”처럼 느껴지더라도 “깊은 것, 원리, 기본 바탕”을 배울 수 있다.

“깊은 것”, “원리”, “기본 바탕”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창의적” 세계로서의 학문의 가치를 깨달은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대학이란 당장에 쓸모가 없더라도 “밥벌이와 전혀 관계없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지식은 당장에는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과 K양의 표현처럼 “사회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기업에서 인턴사원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무조건 ‘능력을 100% 발휘해라’ 그런 식의 교육”을 하지 않아도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판단에 따르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유용성과 결과의 계산가능성을 척도로 하여 “실전, 실제 쓸 수 있는 기술”만을 가르친다면,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K 양: 대학 가면 이기적이니 하는 말이 많아서 정말 자기공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회 전반적인 데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는 선배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저런 거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략. 기업에 들어가서 필요한 능력은 다 다르잖아요. 중략. 그런 사람들이 전반적인 과목을 배우면서 사회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기업에 가서도 그런 능력들이 있으면 더 뛰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교육이 꼭 기업에 맞추어서 꼭 그 부분만 실질적인 그런 걸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략. 삼성 인턴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보면, 효율성을 강조하고 무조건 ‘능력을 100% 발휘해라’ 그런 식의 교육만을 주입시키거든요. 도움이야 되겠지만, 그런 식의 교육을 대학에서부터 받으면 참 비인간적인 사람들, 그런 인간형이 많아질 것 같아요.

“비인간적”이라는 K양의 지적은 대학이 가시적인 결과를 위한 효율성이 지배하는 일상의

세계에 안주할 때, 즉 세계의 중층성을 깨달을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결과를 상상한 것이다. 그러한 세계는, 마르쿠제(Marcuse, 2002)의 표현을 빌면, ‘일차원적’ 세계다. 일차원적 세계에서는 계산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도구적 이성만이 지배하며 눈에 보이는 가치에 휘둘린다. 즉, 내적인 가치 기준이란 없는, 충만함이 없는 삶이 지배한다.<sup>6)</sup>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차원적’ 인간은 현재의 삶을 꿰뚫어볼 수 있는 비판의 기준을 가지지 못하며 그 기준으로 소외된 현실을 진정으로 ‘부정(negation)’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세계를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가지 못한다. 만일 인간의 유적 본질이 ‘이성’이며, 그 이성이 삶을 꿰뚫어보고 비판할 수 있는 내적인 기준과 능력이라고 한다면, 일차원적 인간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내적인 가치와 기준은 학문의 세계에서만 향유하고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술, 종교, 도덕 등 다양한 세계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로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주로 다루는 세계가 학문의 세계이며, 이 세계를 통하여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세계의 중층성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충만함이 깃든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즉 “삶의 방향”이 그려진 “설계도”를 가지기 위하여 법대의 K군은 바쁜 와중에도 좋은 교양과목을 찾아 듣는다. 그리고 법대생들에게 “자살행위”라고 알려진 중앙동아리 활동을 한다. 그는 이미 세계의 중층성을 깨달았고, 또 다른 세계의 가치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재학 내 합격”과 성공한 법조인으로서의 삶에만 집착하는 일차원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 2. 교육적인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를 구분하는 안목의 형성

H 군: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고등학교까지의 공부는 굉장히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코스를 밟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학문이라고 할 수 없고, 대학에서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서 학문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것인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한데 알고 싶은 것들을 알 수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있었던 방법론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테고. 중략. 채널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의에서 배울 수도 있고, 선배나 동기나 교수님과의 대화의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채널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일단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강의만 듣는다고 해도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장상호(1991)는 이러한 세계의 중층성을 수도계와 세속계의 구분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세속계는 인간이 더불어 생존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세계로 권력과 재산, 명예가 위력을 발휘하는 반면, 수도계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 위대성을 실현시켜 좀 더 높은 세계의 실재성과 접하는 것과 관련된 세계로 내면의 존재적 요청에 따라 주체 스스로가 위대성을 수련한다.

법대생들에게 “자살행위”란 일차원적 세계를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법대생들조차도 그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K군과 같은 “자살행위”를 한다. 철학과 H군의 표현을 빌면,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즉, 대학은 학문을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변증적으로 성장시키는 안목과 태도를 기른다. 학문(學問)은 글자 그대로 배우고 질문하는 것이며 그것은 현재의 생각 틀을 벗어나 새로운 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한울대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와는 다르게 대학에서 교수와 선배, 동학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제대로 된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된다. 즉, 학문을 토대로 진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교육적인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그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좋아서”,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이며, 그때야 비로소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과 L군에 따르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해야 하나보다”하고 “떠밀려 가듯이” 공부하고 과학고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왔다. 너무 “모범적으로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었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면” 유학 가고, 그러면 “먹고는 살겠네”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한 번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놀자”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자립심”이 늦게 크는 것 같았다. 자기가 “좋아서 공부한 애들은 놀면서도 자기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할 게 없어서 나중에는 “시간을 때우려고 놀게 된다”는 것이다.

중등교육까지의 교육과정에서는 “모범적으로 따라하는” 학생들이 성공한다.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수학과 L군과 마찬가지로 경영대의 Y군 역시 고등학교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강제로” 주어지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그것을 외워서 시험을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등교육,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신이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하고, 주어진 과제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 내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전공이고 공부하는 방식에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대의 C군의 표현처럼 “좋아하고, 잘 하고 싶은 과목”은 도서관, 헌 책방을 뒤져서라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을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파고들면서 고민”하는 과정을 고등학교 때는 체험할 수 없었던 것이다.<sup>7)</sup>

7) 자기주도적 학습론의 대표적 연구자인 놀즈조차도(Knowles, 1975: 18, 배영주, 2005: 204에서 재인용) ① 분위기 만들기, ② 학습요구의 진단, ③ 학습목표의 공식화, ④ 학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인, ⑤ 적

대학에서 “자기 공부”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을 완전히 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학과의 H군은 한 마디로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공부 방법”이라고 못 박는다.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수업을 통해서 혹은 선배나 동기, 교수와의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도 배웠다는 것이다. 그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강의만 들어도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말하는 “자기 공부”는 대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맥락, 즉 교육공동체에서 습득되는 것으로, 성인학습이론에서 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나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조절적 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의 개념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맥락과 무관한 개인적인 학습으로 개념화되며(배영주, 2005: 204-213), 자기조절적 학습 개념 역시 맥락과 무관한 도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만을 강조한다(Kim et al, 2007: 503).

“자기 공부”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이 아니라, 교육학과 L군의 표현을 빌면, “학교와 학과의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다. 교육공동체로서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맥락적’인 것이다. 그것은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교육공동체에서 보고 배우는 “공부 방법”에서의 핵심이 학습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technical) 요령이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에 가깝기 때문이다. 요령은 매뉴얼을 통해서도 습득 가능하지만 자세와 태도는 그렇지 않다. 가령, “통찰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지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거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요점을 잘 파악”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정확한 답”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에 대하여 “특별한 사심”이 없고 지적 욕구와 성취만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느낌을 준다. 즉 “사심”과는 다른 내적인 기준에 의하여 학문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공학과 의 O군의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교수가 “질문을 많이” 하며, “가르치다가 헛갈리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이 안 생기고 혼란이 없는 절대지식을 교수가 가졌느냐를 따지지 않으며, 그 교수가 얼마나 “사심”없이 공부하는가를 지켜봄으로써 배운다. 물론, 교육학과 S양의 말처럼, 그녀를 둘러싼 교수들 중에는 자신의 정치적 명망을 위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혹은 안위나 실적, 사회적 인정을 위해서 수업을 방기하고 학문을 이용하는 교수도 있다고 그들은 판단한다. 그들은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판단할 정도의 안목을 형성한다.

“사심”이 없는 공부의 경우는 수업 외 활동에서도 배울 수 있다. 오히려 각종 학회나 동아리,

---

절한 학습전략의 선택과 실행, ⑥ 학습결과의 평가로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여전히 타일러의 목표중심교육과정의 기법에 근거하여 자기주도학습을 맥락과 무관한 개인적인 학습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인지심리학에서 발달한 ‘자기조절적 학습’ 역시, 김민성 외(2007: 503)가 지적하듯이 메타인지, 그리고 계획과 모니터링, 기준에 따른 과정 평가 등의 전략적 행동, 그리고 동기에 의하여 인도되는 과정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도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만 부각시켰을 뿐 그것이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 등은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스터디를 통해서 전공 학과를 뛰어넘어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공부, 즉 자신이 “깨어지는” 즐거움과 가치를 깨달을 수도 있다. 학점과 권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즉 “사심”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즉, 그들은 교수가 명시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제시할 수도 있는 “정답”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다. 공대의 S군은 환경동아리의 세미나를 통하여 “공학이 과학과 인문사회의 접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학기술과 환경에 대한 공부를 하였고, 독문과의 N양은 학과 학회에서 학점이나 교수의 권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많이 깨지”면서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 안이하게 살았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또한 교육학과 M군은 자발적으로 구성한 스터디에서 “정답”을 강요하는 “평가의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S양은 “자신의 생각이라면 왜 그렇게 정리가 안 되냐”는 직접적인 지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심”이 없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자신의 이해관계, 즉 권력이나 명예, 부 등의 재적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앞서 세계의 중층성과 연결지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중층적 세계를 구성하는 학문적 가치, 즉 내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자신의 공부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부는 끊임없이 자신의 틀을 “정답”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여기지 않으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직시하고 더 성장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사심 없는 공부”란 학문의 내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학문을 통하여 자신의 변증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의 과정이다.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교육”이라는 표현을 직접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문을 소재로 한 교육의 과정이 지켜야 할 내적인 기준을 교육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사심 없음”을 기준으로 교육적인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논어의 표현을 빌면,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위인지학(爲人之學)’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sup>8)</sup> 위기지학이란 자기 내적인 가치 추구를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으로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하여 공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위기지학은 공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내적인 충족감을 얻기 때문에 공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데 비하여 위인지학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결과적으로 공부로부터 소외된다. 그런 점에서 일차원적 세계의 사회적 유용성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많이 할수록, 즉 “자살행위”를 많이 할수록, “사심”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커진다. 교육학과 S양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교해지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 평가의 기준

8) 《논어》 현문편의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배웠지만, 오늘날은 남을 위해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에서 비롯되었다



을 바로 자신의 공부에 적용하여 학부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더라도 제대로 공부함으로써 “최고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S양의 표현은 그녀의 공부가 이미 위기지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 3. 소극적 자유에 근거한 적극적 자유를 살기

“대학은 자유로운 곳이다”. 대학을 들어오기 전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에게 대학은 “잠을 많이 잘 수 있는 곳”,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는 곳”, “경쟁이 덜 한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는 곳”, 한 마디로 “자유로운” 곳이었다. 이러한 대학의 이미지는 바로 잠을 많이 잘 수 없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으며, 경쟁적인 인간관계에 찌들었던 고등학교 때까지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시간적 여유와 교육과정 상의 선택의 권리 등 제도적으로 그 이전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를 부여받는다. 더 나아가 그 ‘소극적’ 자유에 토대를 두고 한 가지 기준에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판단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삶이 있음을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자유의 ‘적극적’ 의미를 깨닫게 된다.

물론 자유의 ‘적극적’ 의미를 깨닫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학과 L군의 표현을 빌면, “내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어지니까”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스스로 자기 일을 찾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도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 “무기력”이 엄습했다. 대학에 들어오기만 하면, “뭔가 신기한 게 많을 것” 같고 “뭔가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자부심”이 크고 “지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무력감이 컸다고 수학과 K양은 말한다. 그녀도 “뭔가 맘을 먹으면 다른 것을 다 끊고 독한 맘”으로 해내곤 했는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학생들을 만나면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깎여 나가”면서 조금은 속상하고 “심리적인 위축”도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무력감과 심리적인 위축은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준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생긴 위축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가지 기준, 즉 성적에 의하여 자신의 삶이 평가되고 그에 따라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김소희, 1991). 한울대학교 학부생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고등학교 생활 당시 성적은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대학에 오니 학업능력에서도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학생들이 있고, 그 밖에 자신을 긍정할 다른 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 다양한 가치를 찾는 일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권리라는 '소극적 자유'는 적극적 자유의 토대가 된다. 대학이 제도적으로 부여한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권리 속에서 "무기력"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신을 지배했던 획일적 기준을 반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K양은 수업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 나선 동아리, 학회, 봉사 활동들을 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축복처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대의 Y군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고가 "굉장히 열린 것" 같고 전에는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인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는 운동권이나 학생운동에 대해서 어른들이나 뉴스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빨갱이"라는 이미지로만 받아들였지만 1학년 때 "학생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은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고, 뭘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 마음을 많이 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인문대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고시를 선택했지만, 독문과의 N양은 인문대에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계속 경쟁 속에 있어서 뭔가 해야겠다고 조바심 내기"보다는 "진짜 대학생활다운 생활"을 경험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양한 학회와 동아리,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책과 자료를 많이 접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느꼈다. 어떤 건 "귀감"이 되고 어떤 건 "경계"할만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바른 사람"으로 "살려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이 가능한 것은 대학이 대학 밖 사회와는 달리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육학과의 M군에 따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면, 사회에서는 "그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즉 그 실현성 여부만을 중시하지만 대학은 그것이 "먹히는 거 안 먹히는 거 상관없이 자기가 사유할 수 있는 끝까지 가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처럼 누구에게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코코블럭이나 레고블럭을 맞추어 가듯이 해체했다가 다시 맞추어보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스스로 해보고 깨지는 과정"에서 "뭔가를 깨달아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보기에 "사고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시행착오의 대가가 상당히 적은" 대학의 의미이다.

M 군: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나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보고 깨진 다음에, 상사나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고 깨져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코코블럭이나 레고블럭 맞추어 가듯이, 해체했다가 다시 맞추어보고 그런 것들을 길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남이 하듯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책임을 지지 않고 겪을 수가 있죠. 시행착오에 대한 대가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대학 아니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중략. 사고의 자유가 있으니까.

삶과 자신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 자신을 체험하게 되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는 시간적 여유와 그것을 향유할 선택의 권리가 있는 소극적 자유를 배경으로 자유로운 사고와 실험 자체가 자극되는 대학의 분위기 속에서 체험된다. 교육학과의 M군은 그래서 대학교육은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도 “한울대니까” 그런 다소간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사고의 극단을 시도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sup>9)</sup> 그러나 모든 대학이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밑천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밑천”은 “사유의 끝까지 가볼 수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성 가능하다.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토대로 ‘무엇에로의’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대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한다. 그들은, M군의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고등교육의 중요한 결과로 여겨지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가 바로 소극적 자유에 토대를 둔 적극적 자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 또한 깨닫는다. 일찍이 프롬(Fromm, 1960)이 나찌즘의 광기를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freedom)”로 이해한 것처럼, 자신의 삶을 구조화하고 평가했던 한 가지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은 분명 부담스러운, 그리하여 도피하고 싶은 상황일지 모른다.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무기력에 빠졌던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다행히 한울대학교에서는 그 무기력을 달고 다양한 가치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학생들의 자발적 전통이 있었다. 동아리, 학회, 스터디 활동 등 그것이 없다면 학생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또 다른 획일적 기준에 매달릴지 모른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학생들의 커리큘럼 외 활동들이 위축되어 가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적과는 또 다른 획일적인 기준에 학생들이 다시 얽매이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9) 실지로 조용환(1999: 309)의 연구에 따르면, 한울대학교 학부생들보다 취업에 있어서 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대생들의 경우 시간적 여유 속에서 적극적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안정화전략”으로 취업과 대학원진학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분산투자전략”을 취하여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 IV. 논의

고등교육의 질(質), 본 바탕이란 무엇인가?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체험한 고등교육의 핵심은 한 마디로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기'이다. 초·중등교육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지만, 고등교육 단계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필요'와 '그 너머' 양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공부"의 이중성을 자각하고 다양한 시행착오와 실험 속에서 세계와 교육, 그리고 자신을 체험하는 가치기준을 형성하며 삶의 방향을 찾아나갈 힘을 기른다. 즉, 고등학교 때까지의 "공부"와는 달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가치로운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일차원적 세계를 벗어나게 되며, "사심 없이" 공부한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한 가지 기준에 얽매인 자신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다양성을 실험하고 체험하는 적극적 자유를 살아보게 된다. 그들에게 고등교육이란, "공부"를 통해 세계와 자신을 동시에 성장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적인 기준과 안목을 가지게 됨으로써 고등학교 때까지의 맹목적(盲目的) "공부"와는 차원이 다른, 주체적인 교육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다.

물론 위에서 드러난 고등교육의 질은 분명 한울대학교라고 하는 소위 연구중심의 명문대학교이기 때문에 부각되어 드러난 것일지 모른다. 오랜 기간 형성된 한울대학교의 학문지향적 전통은 학생들이 '필요'와 '그 너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그 너머'의 가치를 충분히 체험함으로써 "공부"의 이중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자각으로 인하여 이전의 삶과는 다른 세계와 교육,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을 수도 있다. 즉, 학문적 수월성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대학의 특성이 연구를 통하여 드러난 것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학제상 초중등교육과 구분되는 점은 상대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로운 학문의 추구하고 그에 토대를 둔 교육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필요'가 아닌 '그 너머'를 체험하는 정도는 대학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그 체험의 정도에 따라 이중성에 대한 자각의 정도 역시 달라질 것이다.

실지로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체험한 고등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고등교육이 왜 제도적으로 '최종교육'으로 정의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체득함으로써 이후 제도적 기반이 없이도 교육을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안목과 힘을 가지게 된다. 이 안목과 힘은 2007년 하버드 대학 보고서에 정리된 학부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목적과 그리 다른 것이 아니다(신의순, 2008, p. 167에서 재인용). 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학생들을 시민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둘째, 자기자신을 예술, 이념, 그리고 가치의 산물이자 참여자로 이해하도록 하며,

셋째, 학생들이 변화에 비판적이고 생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로운 무언가”는 예술, 이념, 그리고 가치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며,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써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것의 산물이자 참여자라는 것을 자임(自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언행을 도덕적 수준에서 이해하고,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사고와 삶을 체험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열린 태도와 내적인 판단 기준을 얻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더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최근 고등교육에서 길러야 할 역량으로 제기되는 자기조절능력, 비판적 사고력, 표현력, 다문화적 소통능력(Kim et al., 2007: 505-507) 역시 바로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고등교육의 본바탕과 잇닿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등교육다운 교육, 즉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이룰 수 있는가? 이제까지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 담론은 양적인 수치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러한 의미의 ‘수월성’을 얻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교육과정을 학생들로 하여금 ‘채우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필요’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형성한 역량은 위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여러 차례 주장하고 있듯이 ‘필요’보다는 ‘그 너머’에 이끌릴 때, 즉 “열성”과 “배려”, “준비”와 “학자다움”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교수들과의 수업과, 각종 커리큘럼 외 활동에서 드러나는 선배와 동학들과의 “사심”없는 사고 실험 등을 통해 공부 방법과 공부 태도를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며, 한 가지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리게 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역량은 길러지고, 수행되며, 표현된다. 요컨대,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는 데 필수적 환경으로써 학교가 교육공동체로 작동하고 있을 때에야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다운 수 있다.

대학이 교육의 공동체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공부”가 순전히 개인적인 성격의 작업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태적 성격의 것이라는 말이다. 조용환(2001: 3)이 지적하듯이, “나는 타인의 교육적 환경이 되고 타인은 나의 교육적 환경”이 된다. 제도적으로 주어진 시간적 여유와 선택의 권리, 그리고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고와 삶의 실험이 허용되고 권장되는 대학의 전통 속에서 교수와 교수, 학생과 교수, 선배와 후배, 그리고 급우들이 수업에서, 학회에서, 동아리에서, 학과 활동에서 서로를 관찰하고 모방하고, 체험하고 실험하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부를 넘어설 때 진정한 교육의 주체로 거듭난다. 생태학적 표현을 빌면,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제도적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이가 “환경과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유기체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다(한승희, 2006: 130).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이 교육공동체 속에서 한 명의 주체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대학생들

의 학습 형태'에 관한 2006년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공동프로젝트 하계워크숍 발표자료에 따르면 60%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입학 후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학년과 관계없이 학습기술·방법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면학분위기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터디그룹 또는 튜터링 활성화를 꼽았으며, 가장 바람직한 교수의 역할로 전공분야의 전문성이나 전공·진로에 대한 지도보다 열성적인 강의를 들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 그 너머'를 살아가는 선학인 교수들과 선배들, 그리고 학생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에게 교육적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이 말하는 최근 대학의 세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가시적인 양적 지표를 가지고 대학과 개인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한울대학교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점차 많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필요' 그 너머를 볼 여유를 상실하고 있다. 경영대 Y군은 "보고서를 읽어볼 생각도 안 하는 교수와 내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분개하며,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자연대의 S군은 "공부 잘 하는 것"을 "학점 잘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후배들이 아쉽다. 또한 수학과 L군은 정신적 멘토(mentor)를 찾을 수 없는 선후배 관계와 학과 분위기가, 철학과 H군은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속성과 "권위적인" 교수들이 아쉽다. 소위 근대의 개발지상주의가 자연생태계를 위협하였듯이 양적인 평가지상주의가 교육생태계, 교육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요구하는 지식생산조차도 교육학과 M군이 말하듯이 "기본", "원리"에 기초한 "사고의 자유"가 보장되고 권장될 때 그 "밑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양적인 평가지상주의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 어디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결과는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바라보는 기존의 논의 방식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한다. 첫째, 고등교육의 질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양적인 지표에 치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게 되는 것은 학점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취업 성과 때문이 아니다. 또한 교수의 연구력과 교육력을 단순히 논문편수나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 등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교수들조차 '필요'에 얽매이게 함으로써 '그 너머'를 지향할 수 있는 여유를 빼앗고, 그 결과 학생들 역시 수업을 통해 '그 너머'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중국에는 새로운 발견과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태도를 키우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대학이란 여전히 "이해타산이 없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가치"가 포함되고 "도구"적이지 않은, "밥벌이와 전혀 관계없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 다양한 사고와 삶을 실험할 수 있는, 사회에 나가기 전의 "유예기간"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각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직접적인 학습목표로 하는 공식적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외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나 학회, 스터디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문지식이나 학술적인 역량의 경우는 그 성격상 공식적 교육과정으로 양성이 가능하고 그것이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도덕적 가치판단이나 시민성, 다문화적 소통능력 등의 사회문화적 역량은 그렇지 않다. 대학이 도덕성 함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한 연구(김지영, 2004)에서도 드러나듯이 봉사활동을 프로그램화하고 그것을 의무화하여 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한 학교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는 실험과 시행착오가 가능한 시간적 여유와 조건을 갖춘 학교에서 학생들의 도덕적 가치판단 능력이 더욱 함양되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스스로의 판단에서 실천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상황에 자주 맞닥뜨리게 될 때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진정으로 길러진다. 즉 '소극적 자유'에 근거하여 '적극적 자유'를 살아보게 될 때 그러한 역량이 길러진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대학구조개편안은 대체로 각종 양적인 지표를 올리기 위한 획일적 처방이다. 그러나 처방을 위한 구조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개별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부자들의 관점에서 차분히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마다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지향 등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 연구는 소위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명문대학교의 학부교육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명, 교육중심대학이나 비명문대학교를 연구현장으로 삼았을 때에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될수록 맥락적 조건의 차이에 따른 고등교육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고등교육다운 고등교육이 무엇인지를 궁구하기 위한 이론적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마다의 구조개편방향을 모색하는 실제적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석(2008). 한국고등교육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성식(2008).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생활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1): 227-249.
- 김소희(1991).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적의 의미.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철(1986). 한국대학생의 문화화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1997). 초등학교 수업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2004). 대학교육과 도덕판단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2006). 대학생들의 학습 형태. 대학교육개발협의회 공동프로젝트 2006년 하계워크숍 발표자료.
- 박상욱(2001). 대학생 '학회'의 학습공동체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배영주(2005). '학습주의' 관점에서 본 자기주도학습론. 김신일·박부권 편저(2005). 학습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 서근원(2003). 수업을 왜 하지?: 꼼꼼하게 들여다 본 아홉 개의 수업장면. 우리교육.
- 신의순(2008). 한국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체제와 당면과제. 대학 학부교육의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발전방향(2008년 6월 12일, 제4회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육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신현석(2003). 한국 고등교육개혁의 구상과 전략. 고등교육연구 14(1): 83-119.
- 신현석(2005). 한국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 신현석(2008). 대학구조개편과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한국교육학연구 14(3): 171-202.
- 안도희·김옥분·표경선(2005). 대학생의 지적능력에 대한 신념, 성취목적지향 및 학습접근책간의 관계 모형. 한국교육 32(4): 3-27.
- 오욱환(2003). 한국 대학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혁 방향의 구상. 한국교육 30(2): 317-341.
- 오재림(1992). 미국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공선택과 변경의 유형에 관한 연구: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1): 37-54.
- 윤여각(1997). 태극대학교 대학원의 학문적 수월성 유지 기제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두휴(2001). 글러벌라이제이션에 대응하는 고등교육의 개혁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1(3): 105-125.
- 이혁규(1997). 중학교 사회과 교실 수업에 대한 일상생활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박사학위논문.

이혜정(1989). "노는 애들"의 세계 : 중학교 또래 집단의 학교 밖 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장상호(1991). 교육학 탐구영역의 재개념화. 교육학연구, 91-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정진곤 외(1998).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체제 개혁방안.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조용환(1997). 사회화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조용환(1999).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여대생들의 홀로서기를 중심으로.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pp. 289-322). 서울: 교육과학사.

조용환(2001). 문화와 교육의 상생-갈등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8.

조용환(2004). 질적 연구와 질적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7(2): 55-76.

한승희(2006).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論語

Fromm, E.(1960). *Escape from freedom*. London and Henry: Routledge and Kegan Paul.

Heidegger, M.(1979). *Sein und Zeit*. [17 Aufl.]. 이기상 역(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Marcuse, H.(2002). *One-dimensional man : studies in the ideology of advanced industrial socie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Merleau-Ponty, M.(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류익근 역(2002). *지각의 현상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Kim, M. S. et al.(2007). A Review of Human Competence in Educational Research: Levels of K-12, College, Adult, and Business Education. *Asia Pacific Review* 8(3): 500-520.

Strauss, A.(1987).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www.donga.com/fbin/output?f=ne\\_&n=200808040483](http://www.donga.com/fbin/output?f=ne_&n=200808040483)

\* 논문접수 2009년 2월 2일 / 1차 심사 2009년 3월 1일 / 2차 심사 2009년 4월 27일 / 게재승인 2009년 6월 10일

\* 서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주엽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기초학(교육인류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BK21 서울대학교 역량기반교육혁신연구사업단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에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홈스쿨링을 만나다'(단독, 민들레출판사), '다문화사회의 이해'(공저, 동녘)가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담론의 형성과 그 저항", "여유의 교육적 의미: 홈스쿨링의 시간체험을 중심으로", "어윤치미크에게 말 걸기: 한 몽골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본 다문화교육" 등이 있다.

\* e-mail: artee1@chosun.ac.kr

\* 민혜리: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사회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논문으로 "대학생 사교육비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강의의 기준 탐구", "대학 교수학습의 질에 대한 재인식" 등이 있다.

\* e-mail: hrmin82@snu.ac.kr

Abstract

## **What is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quality?: Qualitative case study on undergraduate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gong-bu' in a prestigious university in Korea**

Seo, Deok-Hee\* · Min, Hye-Ree\*\*

This research aims to critically reflect the mainstream discourse of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quality by conducting qualitative case research on undergraduate students' lived-experience of "gong-bu" in Hanul university, a prestigious university in South Korea. Recognizing duality of "gong-bu", needed "gong-bu" for output and "gong-bu" beyond need in leisure, undergraduates in Hanul university are given a rebirth as a subject of education. They escape from one-dimensional world by experiencing "unfathomable value by money", learn "disinterested" method and attitude of "gong-bu" from professors, seniors, and cohorts, and experiment and respect diverse ways of life in search for their own direction of life. Also, their academic and socio-cultural competences are developed, performed and manifested by relishing such process of "gong-bu" in leisure with other subjects of education rather than fulfilling needed "gong-bu" for output. These research results imply as follows. First, excellence in higher education quality cannot be achieved when university members are bent on fulfilling those needed for outputs. Instead, it can be accomplished when self-generated traditions for educational community are maintained and restored. Second, diverse 'up-ward' university restructuring is needed, depending upon traditions and visions of individual universities, which can be revealed by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practice of higher education in individual universities.

Key words: higher education quality, qualitative case study, duality of "gong-bu", re-birth as a subject of education, educational community, 'up-ward' university restructuring

---

\* Chosun University

\*\* Seoul University